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1년 1월 6일 수요일
etoday.co.kr

제2550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여야, 중대재해법 8일 본회의 처리 8

국민연금, 대한항공 유상증자 반대 18

코스피(5일) 2990.57(+46.12P) | 코스닥 985.76(+8.14P)
환율(달러당 원화) 1087.60(+5.5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0.936%(-0.018%P)

'공공재개발의 역설' 빌라 폭등세 불렀다

재개발 잇단 추진에 몸값 2배로
'공공임대 확대' 정책에 시들했다가
사업 기대 커지며 노후 빌라 각광
조합원 입주권 받으려 문의 급증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공인중개업소들엔 요즘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 일대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구입 문의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5억7000만 원에 팔렸던 전용면적 83㎡ 빌라는 현재 몸값이 8억7000만 원 넘게 올랐다. ▶관련기사 3면

공공재개발이 이른바 빌라 매매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구역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을 시행사로 참여시키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 20~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원효로1가에선 지난해 공공재개발 추진을 결정했다. 규제 완화로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키우기 위해서다. 사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역 내 노후 빌라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권리 산정일을 넘겨 입주권을 못 받는 전용 30~40㎡짜리 빌라들까지도 이젠 5억 원이 넘는다"며 "이번에 공공재개발이 안 돼도 2차, 3차 후보지 공모도 있고 이 기세를 몰아 민간 재개발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량
(단위 : 건) ※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공재개발 기대에 빌라 매맷값이 오른 건 성북구 성북동도 마찬가지다. 성북1구역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선 전용 70㎡짜리 지하집이 5억2000만 원을 호가한다. 2019년 말 같은 층, 같은 면적이 2억5500만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값이 배가 올랐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북1구역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재개발에 도전했다.

지난해 5월 공공재개발 제도가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재개발 구역에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이유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시큰둥했다. 하지만 하반기 주택난과 함께 정부 규제 드라이브가 심화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흥행시키기 위해 애초 계획과 달리 과거 재개발 구역이었다 해제된 지역까지 공모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빌라값이 본격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개발 길이 열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도 "재개발 사업 추진까지 변수도 많고 시간도 제법 걸릴 수 있는 만큼 섣부른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최영함 호르무즈해협 인근 급파 청해부대 최영함이 5일 새벽(한국시간)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한국케미' 나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최영함은 전날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상황을 접수한 직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으로 급파됐다. 사진은 2019년 임무 수행 중인 최영함 모습. 연합뉴스

美·이란 갈등에 볼모 된 한국

뉴스 분석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 유조선 나포
서방국 동결자금 회수 협상 노린 듯
우라늄 농축농도 상향 작업도 착수

한국이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볼모 신세가 됐다. 미국 등 서방국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이란이 각국에 동결된 자금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이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관련기사 4면

AFP통신은 4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했다고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과 해양항만청의 인도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케미 선사인 디엠쉽핑 측은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나포된 위치 역시 이란 해역이 아닌 공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선박이 나포된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에 들어서기 위해선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로, 공해이지만 사실상 이란군의 통제하에 있다.

김혁 한·이란 협회 사무국장(외국어대 겸임교수)은 "한국 선박 억류가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과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이란이 한국 내 동결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대신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여러 동맹국 가운데 하필 한국 선박이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선 '계획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현재 미국의 제재로 여러 국가에 예치해 놓은 자금이 동결된 상황이다. 한국 내 동결 자금도 수십억 달러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논의를 위해 조만간 한국 외교부 인사들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란은 한국 정부 측에 한국은행에 동결돼 있는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금으로 입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매달, 같은 지역을 문제없이 드나들던 한국 선박은 핵 개발과 동결 자금의 봉인 해제 등 미국과 이란의 복잡한 수싸움의 수단으로 악용됐다.

미국 측은 "이란은 걸프만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강요하려 한다"며 "우리는 이란에 유조선을 즉각 억류 해제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촉구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삼성전자 '시총 500兆' 돌파

증권가 "목표주가 11만원까지 상향"
'파죽지세' 코스피 3000시대 눈앞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으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삼성전자 덕분에 코스피는 3000 시대 개막까지 불과 약 9포인트만(2990.57)을 남겼다.

▶관련기사 2·18면

5일 삼성전자 시가총액(주가에 주식 수를 곱한 액수)은 500조8647억 원(주가 8만3900원)을 기록하며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시총 400조 원을 달성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이다.

1조 달러 이상인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 시가총액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P&G·엔비디아·버라이즌·코카콜라 시가총액보다 훨씬 크다. 유가증권에 상장된 917개 종목 전체 시가총액의 23.62%다.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사들인 것이 주가 상승의 직접적 이유다. 시총 400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만 4조7538억 원(6413만 주)을 쓸어 담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3조5339억 원)과 기관(1조3544억 원)이 팔아치운 물량을 대부분 소화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배당을 늘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이 주주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날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1만1000원으로 제시했다. 종전 최고치인 10만 원(키움증권)을 넘어선 수치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목표주가 11만1000원은 목표 시가총액 660조 원을 의미한다"며 "사업부별 PER 밸류에이션을 각각 적용해 목표주가를 29%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헬스장·실내 골프연습장 운영 허용 검토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17일後 완화… '영국發 변이' 총 12명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종료되는 17일 이후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조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거리두기 노력이 이뤄져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난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보단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전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은 전체 확진자의 48% 정도를 차지했지만, 12월 말에는 30% 이내로 낮아졌다.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송구하고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주 일요일까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71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은 672명이다.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던 지난달과 비교해선 완화세가 뚜렷하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3차 유행 이후 첫 감소 추세"라며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 이하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적 추정으로는 지난주까지 일평균 900~1000명대 발생을 보인 반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이날까지 총 12명이 확인됐다. 이 단장은 "변이주들은 모두 검역 단계 또는 입국 후 접촉자 중 발견된 것으로, 아직 지역사회 유행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백화점 오픈 9년 만에 최다…현대百 '서울 왕좌' 도전

2월 '서울 최대 규모' 현대 여의도
6월 롯데 동탄·8월 신세계 대전
빅3, 경영 악화에도 줄줄이 출점
신세계 강남 "서울 수성" 리모델링

2월 개점 예정인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조감도.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주요 백화점 3사가 코로나19 경영 악화 속에서도 올해 줄줄이 신규 점포를 오픈, 오프라인 유통의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신세계가 올해 신규 점포를 연다. 2012년에 AK플라자 원주점, 롯데백화점 평촌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현대백화점 충청점 등 4개점이 오픈한 이래 9년 만에 연간 최다 매장 개점으로 평가된다.

먼저 현대백화점이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다음 달 26일 오픈한다. 여의도점은 지하 7층, 지상 9층에 영업면적만 8만9100㎡(약 2만7000평)로 서울 시내 백화점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정지선 회장이 "여의도점을 대한민국 최고 랜드마크, 그룹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는 플래그십 스토어로 만들겠다"고 말할 정도로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 최대 백화점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수입 명품 브랜드가 입점할 예정이다. 현재 몽클레어와 발렌시아가, 에거르쿨트르 등이 입점을 확정짓고,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등 3대 명품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초 무인자동화 매장 '아마존고(GO)' 기술을 활용한 매장도 들어서 '저스트 워크 아웃(상품을 들고 나가면 자동 결제)' 서비스를 갖춘 최첨단 시설도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 여의도점의 개점을 앞두고 서울 백화점 왕좌를 둘러싼 승부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 여의도점이 서울 시내 최대 백화점 타이틀에 도전장을 내자 기존 최대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매장 리모델링을 통해 맞대응에 나선다. 2017년 신세계 강남점에 왕좌를 빼앗긴 롯데백화점 본점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시들해진 명동 상권에서 내국인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MZ세대를 겨냥한 명품 전략으로 부활을 꿈꾼다.

롯데백화점은 6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새 점포를 연다. 동탄점은 2만 평이 넘는 초대형 매장으로 롯데백화점 전점 중 잠실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각 층의 최대 15%는 체험형 콘텐츠로 채워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살리고, 1000석이 넘는 영화관이 들어서는 등 동탄점을 중심으로 롯데타운을 조성해 수도권 남부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롯데쇼핑은 이어 9월에는 의왕에 롯데아울렛을 오픈한다. 2022년에는 롯데몰 송도점과 프리미엄아울렛 울산점, 2025년은 상암 롯데몰 오픈이 예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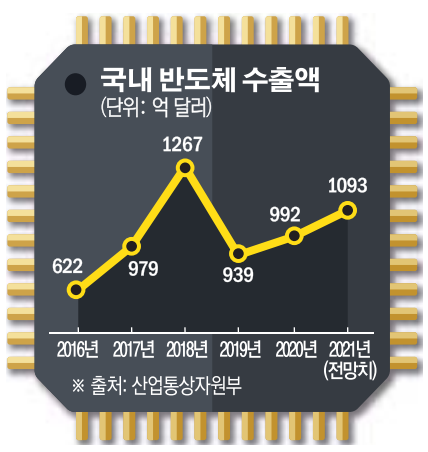
신세계는 충청권 석권에 나선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에 건립되는 신세계 대전점은 6000억 원을 들여 지하 5층, 지상 43층 규모로 건립 중으로 8월 오픈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과 대형 호텔, 과학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연면적 28만3466㎡의 복합시설로, 과학과 문화·여가 생활이 가능한 대전의 랜드마크로 키울 방침이다.

특히 신세계는 부산, 대구 등 지역 상권에 새로 진출할 때마다 터줏대감을 누르고 지역 왕좌를 줄줄이 꿰차고 있는 '도장깨기'의 강자로 불린다. 신세계 대전점 역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중부권 백화점 시장 1위 갤러리아타임월드와 직선거리 2.5㎞에 불과해 격전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모처럼 백화점 빅3가 일제히 신규 출점이 있는 시기"라면서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 업황이 좋지 않지만 예정대로 출점하는 것은 소비심리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반도체 없어서 못 판다" 정부도 슈퍼사이클 예상

D램값 상승·파운드리 호황 겹쳐
올 1000억 달러 수출 돌파 기대



올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3년 만에 최대 호황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액 기준 전망치는 1093억 달러(약 118조7217억 원)로, 반도체 산업 초호황기였던 2018년(1267억 달러) 이후 두 번째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메모리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D램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12.0% 증가한 703억~729억 달러, 시스템반도체는 5G통신칩, 이미지센서 등 수요 증가와 파운드리 대형 고객 확보로 7.0% 늘어난 318억~330억 달러로 예상했다. 주요 시장조사업체인 옴디아, 가트너 등도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약 8~10% 성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올해 호황기를 이끄는 가장 큰 축은 D램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말 2.7달러 수준이던 D램(DDR4 8Gb) 현물 가격이 12월 말 3.46달러로 30% 올랐다. D램 현물 가격은 고정가격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슈퍼 사이클 초입부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화웨이 러시오더(긴급주문)로 공급사재고 소진 시기가 빨라졌고, 지난달 대만 반도체업체 마이크론 정전 여파로 슈퍼사이클 도래 시기가 더 앞당겨졌다. 여기에 노트북 등 PC 제품 수요가 예상보다 더 탄탄하고, 구글, 아마존 등 서버 D램 구매도 재개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D램 수요가 보장된 상태다. 5G 스마트폰 출시 영향으로 모바일 D램 수요도 회복세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업체들이 D램 신규 캐파(생산 능력) 투자를 보수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점쳐진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캐파는 각각 월 4만 장과 2만 장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배당 강화가 필요하고,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비즈니스 인수로 인한 8조 원에 달하는 인수 대금을 지급해야 해 전략적으로 D램 투자를 줄였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D램 라인의 이미지센서 전환도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현재 D램 생산설비 중 가장 오래된 11라인과 13라인을 카메라 이미지센서(CIS)용으로 전환 중이다.

D램 호황에 시스템 반도체도 가세한다. 2017~2018년 반도체 슈퍼호황기가 메모리 제품 위주로 전개됐다면, 올해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5G용 전력 반도체,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수요가 대폭 증가하며 파운드리 업계가 호황을 맞은 데다, SMIC 등 중국 파운드리업체가 미국 제재 영역 안에 들어간 상황도 국내 업체엔 점유율을 늘릴 절호의 기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엔비디아, 퀄컴 등 대형 고객을 잇달아 확보했고, DB하이텍 등 8인치 파운드리 업체도 늘어나는 주문에 생산 단가를 높이고 물량을 완전가동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4일 이재용 부회장은 새해 첫 경영 행보로 평택 2공장 파운드리 공장을 방문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신화를 만들자"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변창흠 장관 주택공급 방안〉

‘고밀개발’ 호재… 빌라경매 낙찰가 2~3배 급등

유찰로 5300만원까지 떨어진 지하층 36명 몰리며 1억3888만원에 낙찰
가격상승률 7.1%… 아파트 추월
신축 난립땐 개발 발목 ‘투자 주의’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양천구 신월7동에 있는 전용면적 37㎡짜리 지하층 빌라가 경매에 올랐다. 감정가 7300만 원인 이 집은 전달 한 차례 유찰돼 최저 매각가가 5300만 원으로 내려갔다. 두 번째 경매에선 상황이 반전됐다. 무려 36명이 입찰에 나섰다. 치열한 눈치싸움 끝에 약 1억3888만 원을 써낸 이모 씨가 낙찰받았다. 법원이 매긴 가치보다 90% 이상 높은 값이다.

한 달 사이 달라진 건 딱 하나. 신월7동 일대 주민들이 서울시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지역에선 공공재개발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노후 빌라(연립·다세대주택)마다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크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중심으로 빌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빌라 매입 바람은 매매시장에서 경매시장으로까지 번졌다. 새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 의지를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은 더 분주해졌다.

◇지난해 빌라 거래량도 30%↑=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다세대·연립주택은 5만5333가구. 4만2160가구가 팔린 2019년보다 거래량이 31% 늘었다. 5월 공공재개발 제도가 도입된 후론 다달이 4000가구 이상 팔려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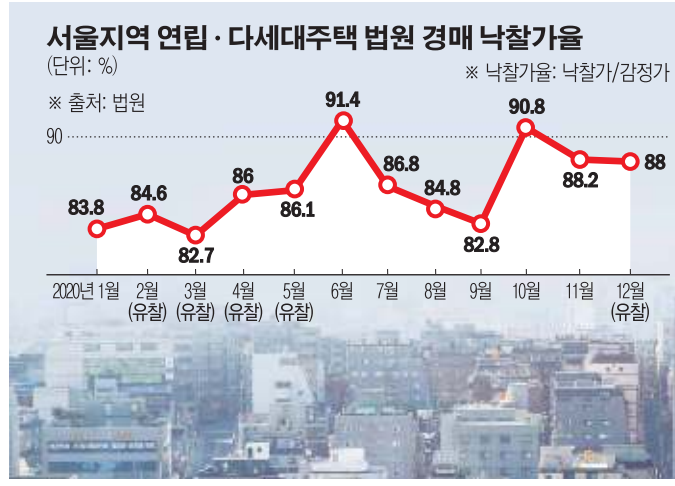
법원 경매도 뜨겁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 80% 초반대였던 연립·다세대 주택 낙찰가율이 연말엔 90%를 넘나든다. 낙찰가율은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 비율로 경매시장에서 빌라가 제값을 되찾고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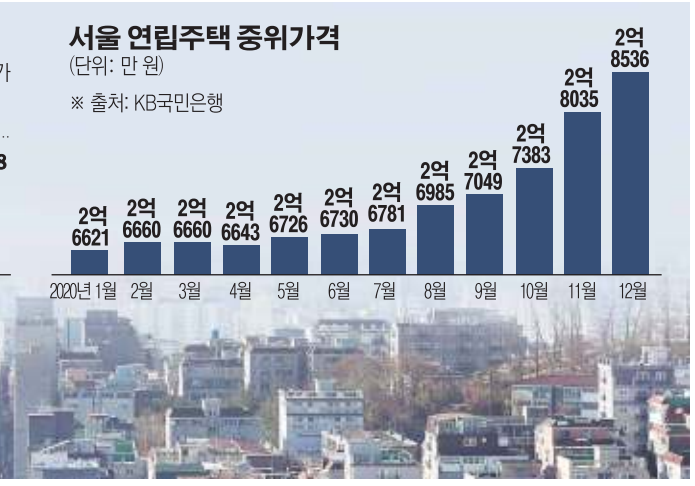
가격도 오름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8536만 원이다. 1월(2억6621만 원)과 비교하면 7.1% 올랐다. 아파트(3.9%), 단독주택(5.7%)보다 오름세가 가파르다.

공공재개발은 빌라시장 호황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대부분 빌라나 단독주택으로 이뤄진 노후 저층 주거지다. 재개발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과정에서 난개발로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섰다. 공공재개발은 이런 노후 주거지를 신흥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다.

◇변창흠 “고밀개발로 주택 공급”=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도 이런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달 “다가구·다세대로 돼 있는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는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공공디벨로퍼(개발자)가 참여한다면 개발 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서울 빌라촌을 고밀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가에선 정부가 설 명절 전에 공공재개발 확대를 포함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취득세 강화도 빌라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은 주택 가액의 1~3%였던 취득세율을 2주택자엔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올렸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진다. 저가 빌라 투자자는 취득세라는 진입 문턱 걱정 없이 개발 호재를 노릴 수 있다.

◇공공재개발 불확실성 유의해야=공공재개발만 바라보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간 낭패를 볼 가능성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공공재개발 사업 명운을 쥐고 있다고 전망한다. 제도를 마련하는 건 국토부이지만 인·허가권을 쥔 건 서울시여서다.

공공재개발을 기대하는 투자자를 노린 신축 빌라가 오히려 개발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위험성도 남아 있다. 공공재개발을 포함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선 지역 내 노후 주택 비중이 중요한데, 신축 빌라가 난립하면 노후도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주민들은 신축 빌라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재개발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투자자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서 내년까지 5000가구 매입”

‘빌라 확보전’ 가세한 공기업 매입가 3억→8억 상향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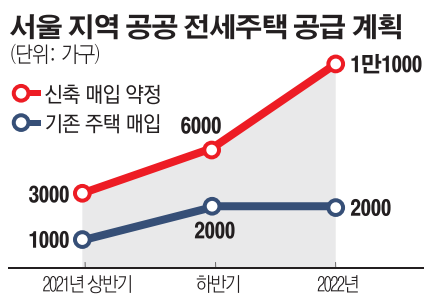
최근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까지 빌라 확보전에 가세했다. 주택 공급 물량 확보 차원이다. 빌라 건물주 입장으로선 꽃놀이패를 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다세대주택 등을 공기업이 매입, 공공전세주택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선 내년까지 5000가구를 사들인다. 아직 지어지지 않았거나 건설 중인 주택도 건축주와 약정을 맺어 2만 가구를 입도선매하기로 했다.

매입 가격도 상향한다. 그간 공기업이 사들이는 매입임대주택은 3억 원이 최대였는데 앞으론 6억 원까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등에선 이를 7억~8억 원까지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가 문제는 그간 민간 건물주가 공기업에 주택 매각을 꺼리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지난해 SH공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계자 80%가 “매입 단가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공공전세주택 확보에 목을 맨 상황에서 앞으론 건물주가 갑(甲), 공기업이 을(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빌라 건물주 가운데선 호기를 만나 세입자가 있는 집까지 넘기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집주인이 공기업으로 바뀔 때 계약 승계 여부를 묻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종전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계약



만료 시점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면 LH 임차인으로 전환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그러잖아도 전세난으로 난민 생활에 내몰린 세입자와 달리 빌라 주인들은 임대수익률이 좋아지던 상황이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연립주택 중위 전셋값은 1월 1억8689만 원에서 12월 2억47만 원으로 7.2% 상승했다. 서울 연립주택 중위 전셋값이 2억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전셋값이 올라가면 적은 돈으로 전세를 끼고 빌라에 투자하려는 갭 투자자를 유치하기도 좋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0평(33㎡) 이하 빌라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아니고선 실거주하기 힘들다”며 “소형 빌라는 대부분 외부 투자자 소유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전세난으로 빌라 건물주가 갭 투자자와 공기업 양쪽에서 구애를 받는 상황이 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빌라 건설이 늘어나겠지만 올라간 가격이 빌라시장에서 기준 가격 노릇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핵심동맹’ 韓 어쩌나… 바이든, 출범 전부터 ‘외교 딜레마’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 모습. 오른쪽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타고 온 고속정이다. 사진은 나포 당시 CCTV 모습. 부산=연합뉴스

이란 도발, 핵 합의·제재 완화 의도 美 내부선 ‘협상복귀 반대’ 목소리 이 와중에 트럼프는 압박수위 높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출범도 전에 외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란이 미국의 핵심 동맹 중 하나인 우리나라 유조선을 볼모로 잡으면서 바이든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하게 됐다. 바이든 정권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따라 향후 대이란 정책의 방향도 정해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2015년 이란 핵 합의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란을 둘러싼 환경은 너무 많이 바뀌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새로운 현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은 그가 백악관에 머무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란도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란이 새해 벽두부터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다양하다. 미국 정권이 20일 교체된다. 또 전날은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거셈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드론으로 폭사한 지 1주기 되는 날이었다. 1주기를 맞아 미국에 조금이라도 보복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정권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지금이 도발을 펼쳐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 동맹국인 한국을 볼모로 잡아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시도까지 곁들였다.

그동안 바이든은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버락 오바마 전 정권 시절 성과이기도 한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바이든의 국가안보 고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주말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솔레이마니가 살해된 이후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국익도 보호됐는지 묻는다면 내 대답은 ‘아니다’”라며 “이란은 1년 전보다 오늘날 핵무기에 더 가까워졌고 걸프만의 해운과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정도로 대담해졌다.

이란의 악의적인 행동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파트너들도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상과 외교를 통해서 이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단순히 협상에 복귀하는 것은 이란 제재로 얻은 상당한 레버리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미국 제재가 이란 경제에 2500억 달러(약 272조 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조셉 리버만 전 미국 상원의원은 전날 NBC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란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자이며 중동에서 대리전을 일으키고 독재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바이든이 2015년에 한 합의에 복귀하지 말고 유럽, 중동 동맹국과 협력해 2021년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새 이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시사지 뉴요커는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이라는 지뢰밭에 직면하게 됐다”며 “핵 합의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그 전제 조건인 ‘이란의 준수가 정확히 무엇인지’, 2015년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이란의 노골적인 인권 유린과 미사일 전력 확대 등 여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매우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韓 ‘청해부대’ 급파… 외교부 “즉시 석방” 촉구

“한국케미호 구출” 호르무즈 인근 도착… 주한 이란대사 초치 항의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구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착했으며, 외교부는 나포 상황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도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5일 새벽(한국시간)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 최영함은 연합해군사령부(CMF),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나포된 한국케미호를 구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별도로 이날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해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억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 국장은 억류 선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선원들의 안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안전하다”고 말하면서도 억류 배경과 해제 시점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1차 대응한 데 이어, 조속한 나포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억류 동기에 대해선 “섣불리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우리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돼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고 국장을 반장으로 아중동국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한다.

하유미 기자 jscs508@·박준상 기자 jooooon@

2개월째 종적 감춘 마윈… ‘실종설’ 제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 설립자인 마윈〈사진〉이 두 달 넘게 자취를 감추면서 실종설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4일(현지시간) 마윈의 사업이 현재 중국 정부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소식을 몇 달째 알 수 없다며 실종설을 제기했다.

마윈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상하이와 홍콩 증시 이중 상장이 중국 금융당국에 의해 좌초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말 이후 공개석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도 잠잠하다. 마윈이 트위터에 마지막 글을 올린 건 작년 10월 10일이었다.

야후파이낸스는 이날 “마윈 자신이 직접 제작한 TV쇼 ‘아프리카 기업 영웅’ 마지막 에피소드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실종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촬영한 ‘아프리카 기업 영웅’ 마지막

에피소드에는 마윈 대신 알리바바의 다른 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TV 쇼 웹사이트에서 마윈 사진도 내려갔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 시스템을 비판했다가 몰락을 자초했다. 당시 마윈은 “오늘날의 금융시스템은 산업시대의 유산”이라며 “우리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약 일주일 뒤 중국당국은 사상 최대 규모가 확실했던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중단시켰다. 최근에는 알리바바를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벌금까지 부과했다. 앤트는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는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NYSE, 中 3대 통신사 상폐 방침 철회

발표 나흘 만에 번복… 차이나모바일 등 관련 주가 큰 폭 상승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중국 3대 통신사의 상장폐지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상폐 절차 계획을 발표한 지 나흘 만의 번복이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감이 다소 완화하면서 5일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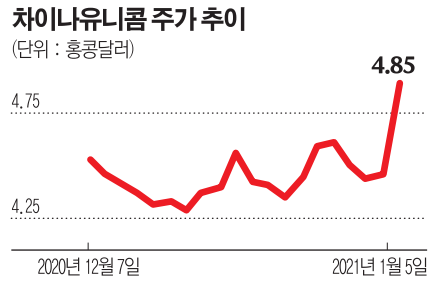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NYSE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통신사의 상장폐지 방침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NYSE는 미국 규제당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앞서 NYSE는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3사의 상장을 1월 7~11일 사이에 폐지한다”며 “행정명령에 근거해 해당 기업은 상장에 적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조치였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해당 블랙리스트에는 이들 중국 통신 3사를 포함해 35개사가 올랐다.

중국 상무부는 2일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보복을 천명했다.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악용하고 국가권력에 동원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뿐 아니라 다른 국가 투자자들의 이익까지 해치고 있어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NYSE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은 미국 자본시장을 공략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 조 바이든 차기 미국 정권이 덜 공격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일치한다”고 진단했다. 이들 통신 3사가 NYSE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 단기간에 상폐를 하게 되면 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폐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홍콩 증시에서 5일 3사의 주가는 일제히 7% 이상 급등했다. 차이나유니콤은 장중 한때 11%나 뛰었다.

한편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산하 FTSE 러셀은 지난달 예고한 대로 5일 차이나유니콤과 SMIC, 난징판다전자를 FTSE 글로벌주가지수와 FTSE 중국A주 통합지수에서 제외했다.

최혜림 기자 rog@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70%로… 건물주 동참이 관건

2021년 경방 후속조치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시 50%
손실 줄 뿐 소득 감소 불가피
임대인 세액공제 효과 미지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료 인하로 얻는 혜택이 소득 감소보다 작아 얼마나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등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기존대로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임대료 인하에 따른 절세효과가 커져 소득공제를 합한 총소득이 오히려 높아지는 역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면 기존보다 손실이 줄어들 뿐,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은 같다. 제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을 정부가 전액 보전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착한 임대인으로서 선의에 의해서 임대료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도 일정 부분 재정 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라며 “임대인 세액공제만으로 임대료 인하를 담보한다는 것은 어렵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100만 원 한도로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200만~300만 원 수준인 공제한도는 230만~33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된다.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전년도 혜택이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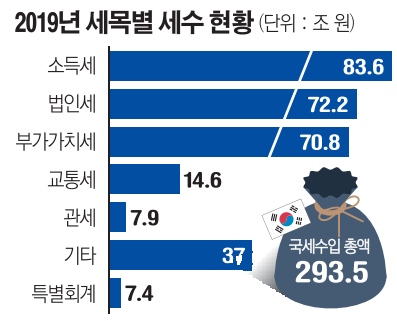
이 밖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도 각각 1%에서 0.25%로, 0.5%에서 0.125%로 인하된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기한까지 제출할 때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집콕 증가에… 작년 술 소비 ‘최고’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주류 지출액이 역대 가장 크게 늘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월평균 가계지출 중 주류 소비지출 금액은 1만9651원으로, 1970년 한은 관련 통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내 주류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화로 부가세 수입 감소 전망 부가세율 올리고 면세 축소해야”

부가세율 56년째 10%
복지재정 등 대비 증세를



앞으로 고령화 심화로 소비성향이 낮아지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나 면세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부가세의 세원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해 기준 70조8000억 원이 걷혔다. 액수로는 소득세(83조6000억 원), 법인세(72조2000억 원)에 이어 정부 재정의 주요 세목이다.

성 교수는 우선 한국의 평균 소비성향(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민간소비지출에 매기는 부가세의 GDP 대비 비중은 거꾸로 상승하는 ‘세수퍼즐’ 현상에 주목했다.

국민 계정상 소비성향은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3.3%에서 4.1%로 상승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부가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세하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고령 가구일수록 과세소비 성향이 작아지므로 향후 고령화가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하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앞으로 성장 효과는 둔화하는 반면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커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이 줄면서 부가세의 재정 기여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 교수는 “한국은 통일 재원, 복지재정 소요 등의 측면에서 재정 소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가세의 세율 인상 또는 면세 축소 등 증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것은 소비기반 과세인 부가세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속해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부가세 등은 인상토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977년 도입 당시 10%로 정한 이후 56년 동안 인상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OECD 평균(19.3%)보다 절반 가량 낮다. 복지 강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부가세율이 25%에 달한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與, 4차 재난지원금 띄우자… 野 “4월 선거 노리나”

전 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 검토… 국민의힘 “추경 의존” 비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일찌감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야당은 지난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 미리 재난지원금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추경에 의존한다며 비판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5일 “4월 선거를 노리는 건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표하는 형국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우리가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지원금을 2021년 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3조원을 확보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돼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는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확정한 뒤 실행을 1주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며 필요하면 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시점에 4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구미~경산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2023년 말 개통

경상북도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북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광역철도 건설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역시·경북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경북 구미·칠곡~대구~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총연장 61.8㎞ 구간에 정거장 7개소를 설치하며 하루 편도 61회 운행(20분 간격, 출퇴근 15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국고를 포함, 1515억 원으로 기존 운영 중인 일반철도 선로를 개량해 전동차를 투입한다. 개통하면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특히 서대구역은 광역철도 외에 KTX고속철도 및 대구산업선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허브역사로 계획돼 향후 지역의 교통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영월까지 내려온 아프리카돼지열병

충청·경북·경기 남하 우려
인근 12개 시군 위험주의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강원 남쪽인 영월에서 발견되면서 농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 조치가 추진된다. 방역당국은 발생지 주변 10㎞를 방역하고, 인근 12개 시군에 위험주의보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31일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발견된 영월 주천면은 기존 발생지점에서 82㎞가 떨어진 지점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지역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로써 ASF가 발생한 시군은 11개로 늘었고, 이후 올해 1일에도 첫 발생지 1㎞ 이내에서 멧돼지 6마리가 추가로 ASF에 걸린 것이 확인됐다.

ASF 오염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돈농장의 위험도가 높아졌고, 특히 충청과 경북, 경기 남부 지역으로 전파 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반경 10㎞ 내 양돈농장 5곳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한 후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지만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들 5곳은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해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외부울타리에는 야생멧돼지 퇴치 효과가 있는 LED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강원남부권역 밖으로 돼지와 분뇨 반출입 금지 조치와 연계해 타지역 반출입도 엄격하게 제한 중이다.

아울러 영월과 인접 12개 시군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들 시군에 있는 178개 양돈농장에는 방역차량 64대를 투입해 진입로,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

1일부터 이들 양돈농장에 축산차량과 외부인이 진입할 수 없고, 모돈사 오염 방지를 위해 전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양돈농장 6066곳에 소독실시 요령과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며 “돼지 밀집사육 시군을 중심으로 농가 소독 강화와 자체 점검, 방역시설 강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이후 4일 동안 135명의 수색인력과 수색견 2개 팀이 반경 8㎞에서 수색작업을 벌였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팬데믹發 新노동계급화… 여성·청년·서비스업 '패닉'

더 커진 고용시장 불균형

대면 업종 중심 취업자 수 급감
단순 일자리, AI로봇으로 대체
맞춤형 재난지원금 대안도 부재

전문가 "생활임금·로봇세 부과 노동취약계층 지원안 논의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우리 국민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노동자를 필수노동자와 지식노동자 외 서비스 기반의 여성 중심 기타 노동자의 자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 동향 2020'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양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작년 5월 기준 전체 응답자 가운데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답변은 50.3%에 불과했다.

실제로 나머지 49.7%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임금이 깎였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26.7%) △일자리를 잃었다(14%) △일자리는 있지만 '무급 휴가' 상태다(9%)라고 답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가을에 접어들면서 3차 유행이 본격화되자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코로나19 실업은 기타 노동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충격을 안겨줬으며 백신의 국내 공급이 본격화돼도 당분간은 취업 시장 전망이 어둡다는 게 재계와 취업 시장의 중론이다.

◇여성·서비스업이 직격탄 =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증발했다. 2009년 리먼 쇼크 때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음식과 숙박업, 서비스업 등 대면 업종 중심으로 타격이 컸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이전과 전혀 다른 노동시장의 위기로 이어진 셈이다.

직접적 피해 대상도 이전과 달라졌다. 40~50대 가장이 직격탄을 맞았던 과거와 달리 코로나19는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에 큰 영향을 줬다.

상용직보다 임시직 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대부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면하는 서비스 관련 업종이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남성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8만1000명 감소했지만, 여성은 무려 11만5000명이나 줄었다. 4월에도 남성(-18만3000명)보다 여성(-29만3000명) 취업자 수가 11만 명이나 적었다.

3차 재확산 이후인 9월에는 여성 취업자 수(-28만3000명)와 남성 취업자 수(-10만9000명) 감소 폭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나이별로도 젊은층의 취업이 더 경직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20대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다. 상근 근로자보다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자 감소도 컸다. 3월부터 정규직 근로자는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임시직 근로자는 8개월간 내림세를 지속했다.

특히 4월(-58만7000명)과 5월(-50만1000명)에는 임시직 일자리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50만 명 넘게 감소했다.

편의점이나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증발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임대료조차 못 내는 상황에 직면하자 가장 먼저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기 시작한 셈이다.

40~50대 직장인보다 20대 젊은층의 단기 일자리까지 영향을 준 셈이다.

◇"서비스직 근로자를 구하라" = 저금리가 지속하는 동안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는 빈부 격차 확대 신호와 연결된다. 새로운 양상의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노동계는 이른바 신(新)계급화 사회로 전환했다.

예산을 쥐어짜내고 짜내 만들어낸 고용안정기금은 필수 노동자와 전문직·지식노동자에, 나아가 대기업에 집중됐다.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자영업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갔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가 창궐했으나 이를 막아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 사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해온 종사자, 이른바 기타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외에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안은 사실상 부재했다.

코로나19 탓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노동정책이 절실하다.

예컨대 단기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의 현황과 피해를 파악하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추가 재난지원금도 절실하다. 자영업자, 즉 고용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들 '기타 근로자'에게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부문 및 집단에 대한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감염병의 집단 감염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위기 극복 이후에는 집단 감염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떠한 노동 시장정책을 갖춰야 할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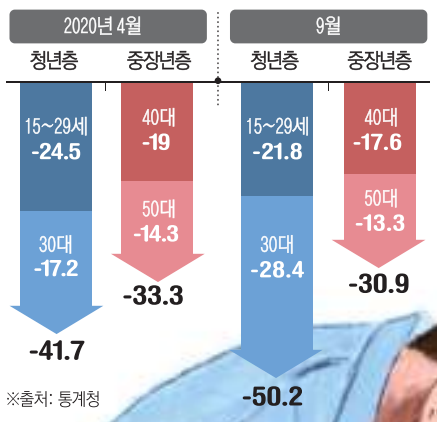
◇기본소득 등 패러다임 변화 필요 = 20세기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업복지와 주택복지, 장애복지 그리고 기타 모든 복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료적 낭비를 일소한다고 주장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고소득층에 세금을 거두듯 저소득층엔 보조금을 주자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이라는 용어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민배당, 사회배당, 사회임금, 생활보장임금 등으로 명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관건은 용어 선택을 넘어 서비스업 기반 기타노동자들의 업(業)을 인공지능(AI)이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어, 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쇼크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노동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 차원에서 장기적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더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주려면 매년 186조 원, 50만 원을 주려면 309조 원이 필요하다. 2019년 복지예산 전체 규모가 161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현 불가능한 규모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의 임금만큼 로봇세를 거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청년층·중장년층 취업자 감소 규모
(단위 : 만 명) ※ 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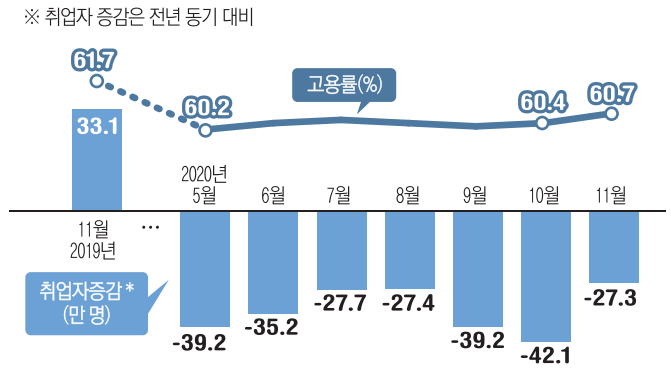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그래픽 신미영 기자 win8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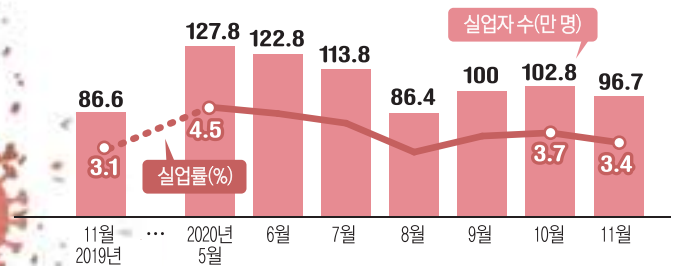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수
(단위 : 만 명)

※ 출처 : 중소기업연구원,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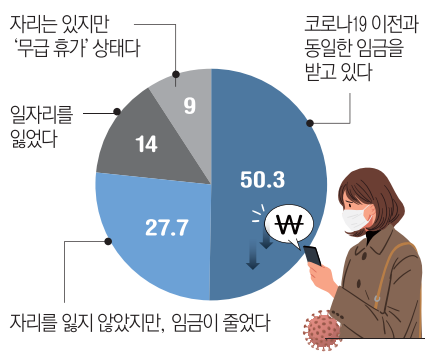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취업자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



실업자 수 증감률 추이
※출처: 중소기업연구원, 통계청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및 임금 변화
(단위 : %)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
※ 통계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임금변화는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귀하께서 임금근로자가 아닐 경우 귀하 가정의 임금근로자의 경우를 답변해주시십오"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출처 : 유명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 5차」, 원자료, 2020. 5

'MZ세대 잡아라'… 대기업, e스포츠 시장 '광클릭'

사진제공 배틀그라운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비대면 확산에 게임산업 각광
팀 인수·프로게이머 협업 등
국내외 마케팅 '두 토끼' 사냥

"e스포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을 것이다."

e스포츠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외 기업들은 시장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e스포츠는 축구와 농구, 야구 등 일반적인 스포츠와는 다르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라인상에서 각종 대회나 리그를 치르는 것을 뜻한다. 게임을 이용한 대회뿐만 아니라 프로게이머, 방송 중계, 기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총괄한다.

국내 e스포츠는 1998~1999년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통해 시작했다. 이후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수많은 게임을 활용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많은 게임에서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1138억 원을 넘어섰다. 2014년 600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뉴주(Newzoo)에서 발행한 '2019 글로벌 e스포츠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e스포츠 산업 규모는 9517억 원으로 집계돼 현재는 1조 원을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e스포츠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CJ ENM은 스타크래프트 시절인 초창기부터 게임 전문 방송 '온게임넷'을 운영하며 e스포츠 중계에 힘썼다. 삼성전자나 이동통신사 등의 기업들 역시 십수 년 전부터 프로게이머를 후원하며 e스포츠 팀을 이끌어왔다. 세상을 떠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생전 프로게임단 창단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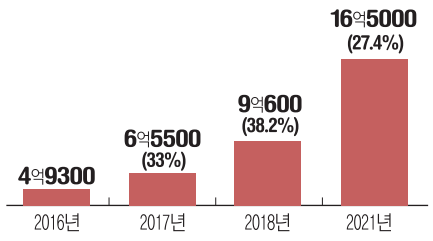
최근에는 e스포츠가 급부상하며 새롭게 참전하는 기업도 늘었다. 농심과 한국야쿠르트, 롯데제과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e스포츠 팀을 인수하거나 프로게이머와 협업하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e스포츠에 뛰어드는 것에 긍정적 입장이다. 우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으며, 기업으로서는 젊은층의 소비자들에게 기업을 알릴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또 유명 연예인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적은 데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알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e스포츠 시장에 다양한 기업들이 뛰어드는 것은 곧 e스포츠 자체가 산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내년에도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게임과 관련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e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 만 달러) ※ 2021년은 전망치



※출처: 뉴주(Newzoo) · 글로벌 e스포츠 시장 리포트

화상회의·SNS로 업무… 행장님은 '파워 유저'

'디린이' 금융기관장은 옛말

조직 디지털 전환 트렌드 발맞춰 유튜브·브이로그 통해 직원 소통 젊은 세대처럼 IT기기 활용 능숙

코로나시대, 얼리어답터 된 금융 기관장들

※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원하는 작업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능력 일러스트 손미경 기자 sssmk@

'디린이' 금융기관장은 옛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손에는 항상 태블릿PC가 들려 있다. 출근할 때부터 태블릿PC로 대부분의 업무를 보고받는다. 신문스크랩 역시 지면이 아닌 태블릿PC로 확인하고, 임원회의도 종이 대신 태블릿PC를 들고 회의를 진행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 청사로 출근한다. 은 위원장과 도 부위원장 모두 SNS로 실시간 업무 보고를 받는 등 금융위 내에서 '얼리어답터'로 꼽힌다.

"애플, 그거 사과 아냐?"라고 묻던 부장님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여의도 식당가에서 에어팟을 끼고 혼밥하는 상사를 마주치는 일이 흔해졌다. 쿨하게 눈인사를 건넨 상사는 한 손에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들고 헬스장으로 향한다. 운동 중 갤럭시 워치로 오후 일정을 보고받은 상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카카오톡PC로 업무 지시를 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직 내 업무 문화가 1년 새 빠르게 변했다. 대부분의 업무 보고와 회의는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문서로 제출되던 보고서는 문서 파일로 전달됐다. 이런 흐름에 가장 뒤처질 것으로 여겨졌던 50·60대 임원들은 달리진 업무 스타일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임원들이 디지털화를 요구하는 조직 내 압박에 못 이겨 반강제적으로 최신 IT기기를 사용해야 했던 초반과 달리 이제는 스스로가 IT기기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결국 직원들의 평가가 자신의 승진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 어느 임원이 IT활용에 능숙한지 금방 소문이 난다. 이런 소문이 조직 인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부 임원들은 보여주기 차원에서 최신 IT기기를 가장 먼저 구매하기도 한다. 갤럭시Z 플립이 국내 출시되기 전 해외 직구로 선구매한 임원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은행장 '유튜브·브이로그'로 소통 = 최근 금융권에서 기관장과 직원 간 소통 창구는 브이로그와 유튜브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셀프카메라를 들고 브이로그를 직접 촬영해 직원들과 소통한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주로 담고, 예고 없이 같은 층에서 업무 중인 부행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돌발 인터뷰도 진행한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최근 유튜브로 진행된 사내 직원 노래 오디션 '들려줘 홈씽'의 사회를 봤다. 권 행장은 최종 결승에 올라간 직원들이 부른 '진달래꽃' '걱정말아요 그대' '하늘을 달리다' '인연' 등에 맞춰 노래를 감상하고, 진행 중 농담을 던지며 결승 진출자들의 긴장을 풀어줬다.

손병환 농협은행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직접 운영한다. 직원들과 '페메(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쌍방향 소통을 한다. 업무 도중 틈이 날 때는 갤럭시버즈를 꼽고 산책을 즐기고, 갤럭시워치로 실시간 업무 보고를 받는다.

김장현 성균관대학교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원래 천성이 외향적이고 새로운 물건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50·60대가 되더라도 IT기기에 친숙하게 된다. 한편, 그런 기질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성이나 어떤 실적을 위해 실용적·도구적 측면에서 디지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화상회의 빈번… 자연스레 IT에 노출 = 코로나시대에는 조직 내 젊은 세대보다 임원들이 더욱 IT기기에 능한 현상도 나타났다. 수시로 온라인 업무 보고를 받고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임원들은 카메라 시선 처리는 물론 관련 프로그램 활용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다. 반면, 여전히 페이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젊은 직원들은 온라인 캠을 이용한 소통을 어색해한다.

김장현 교수는 "50·60대는 한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지위에 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IT기기에 능숙하지 못하면 의사결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50·60대의 디지털리터러시가 강화된 것인데 이런 현상은 과거부터 천천히 진행되다가 최근 급속도로 발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코딩 배운 덕분에 취업했어요"

디지털 무장하는 금융권 취준생

"코딩을 배운 덕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살아 남았습니다."

뼛속까지 문과였던 A(26) 씨는 현재 은행권 웹화면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어문계열의 학과를 졸업한 후 시스템 개발자로 과감하게 방향을 튼 이유는 이 시장의 인력 수요가 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1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취임사에서 "디지털·친환경 은행으로의 진화는 생존을 위한 미션"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A 씨는 "그간 문과여서 취업이 어려웠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 과정을 수료했고 덕분에 취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 공부했던 것 중 70%는 실제 업무에서 활용된다"며 "코딩을 못 하면 입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처럼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20대의 최신 취업 트렌드는 소프트웨어 공부다. 90년대생 정규 교육과정엔 코딩이 포함되지 않아 따로 배우지 않으면 금융권에 부는 디지털 전환(DT) 열풍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 인턴으로 들어간 B(25) 씨는 학과 특성 덕분에 대학교에서 코딩을 배우고 흥미를 느껴 학원에 다니고 스터디까지 꾸렸다. 상품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B 씨의 부서에서 코드는 필수다. 그는 "코딩으로 고객 100만 명에 대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며 "스터디를 했던 경험이 취업할 때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C(26) 씨 역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언어를 익히기 위해 코딩을 공부했다"며 "덕분에 문과 입사자보다 기초 교육부터 업무 수행까지 걸리는 연수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고 했다. C 씨는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코딩 능력이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며 "금융 데이터를 코드화해 분석하는 능력은 업무적으로도 연구를 진행할 때도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디지털 분야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데 그치지 않고 입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재교육을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고려대학교 디지털 금융 공학 석사 과정을 개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빅데이터센터로 발령받은 D(33) 씨는 이론적, 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해 고려대 디지털 금융 공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D 씨는 "보안, 데이터베이스 설계, API 인프라 등 실제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요소를 배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사업 기획에 있어 전문 업체와 소통이 과거보다 원활하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다.

지난달 우리금융지주도 KT와 협력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공동 연수를 진행했다.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실습하고 실무에 적용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 연수에 참여한 40대 E 씨는 "초개인화 시대에 맞춰 고객에겐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하고 직원에겐 편리한 실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들었다"고 말했다. 연수 후 그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을 느꼈다. E 씨는 "방대한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며 "고객과 직원에게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법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권이 DT에 속도를 내면서 90년대생의 디지털 공부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문수빈 기자 bean@

문 대통령 "혁신적 주택 공급방안 마련하겠다"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 초점
내일 당정협의, 부동산 집중 논의
보선 향방 가를 부동산 정책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일성으로 주거 안정 대책으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롭게 꺼내 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상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변 장관 취임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점검하는 자리를 갖는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변 장관 등과 함께 당정 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년 차 부동산 정책 기조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마련한 정책을 실무선에서 논의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일단 7일로 잡혀있는 당정 협의 일정을 순연할 가능성도 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도심권 고밀개발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자리에 참석해 추가 공급방안으로 도심권 고밀개발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당시 변 장관은 서울 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간 주택공급에 있어 서울 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변 장관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역세권 면적을 500m까지 확대하자는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정부는 기존 250m였던 역세권 면적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350m까지 늘렸다. 범위를 500m로 설정하면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 수준이 역세권에 해당한다.

용적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현재 역세권 용적률이 160% 수준인데 300%까지 올려도 되지 않느냐"며 "다만 용적률을 확대할 경우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유 없이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가부 장관, 출국금지 요청도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돼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11월말 36.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ksh@

"중대재해법 8일 본회의 처리" 여야 의견 일치

여야정 이견에 재계·노동계까지 반발… 합의 '미지수'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지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1시쯤 회동을 하고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론을 냈다. 본래 7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8일에는 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 중 합의한 내용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정부 요청에 따라 8일 오전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 단식에 들어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99.9% 노동자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 본인의 뜻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은 5일과 6일 이틀간 원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1박 2일간 동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중대재해법 정부 협의안에 대해 반박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반발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국회를 연일 방문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현행 산안법상의 '1명 이상 사망자 발생'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안의 의무주체가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 또는 이사 중 실질적으로 산업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하는 1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송영록 기자 syr@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손을 맞잡으며 격려하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중 병원에 이송됐다 이날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

신한금융그룹이 스타트업과 함께한 기발한 광고가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기발한 광고

수상의 감사함을 담아
기발한 광고와 함께 꿈을 키워나간 다양한 스타트업을 다시 소개합니다.

친구와 만날 중간 위치를 찾아보세요! 위밋플레이스
친구를 만날 때 생기는 고민에 집중한 위밋플레이스는 만날 장소를 추천하고,
친구와 만나는 시간과 경로를 제공합니다.

* 본 광고는 신한의 광고시간을 빌려드리는 기발한 광고 프로젝트에 기 선정된 작품입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신한AI 네오플럭스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빚으로 버티는 서민경제… 은행은 '성과급 잔치' 논란

코로나發 대출 급증에 실적 상승
작년보다 비이자익 비중은 줄어

국민銀, 성과급 인상 철야농성 강행
노조 "경영목표 미공개로 갈등"
사측 "美증시 상장돼 공시 위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월 통상임금의 300% 성과급을 요구하며 컨테이너 철야 농성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서민 경제가 휘청이는 와중에 '은행권 돈잔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해 '분기 순이익 1조 원 시대'를 연 금융권 실적을 놓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날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익 대부분이 '이자 장사'에서 발생되는 만큼 은행권 돈잔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해보다 100%포인트 인상된 300%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 한장에 의존해가며 역대급 실적을 시현했다"며 "연내 타결을 내세우면서 졸속 합의를 종용하는 사측의 행태를 두고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은행권은 오는 3월 회계연도 순이익이 확정되는 대로 성과급 규모를 정할 계획이지만, 신한은행의 경우 기본급의 18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현금 150만 원을 얹어주기로 했다. 농협은행 역시 200%였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의 평균연봉이 9000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만큼 성과급 수준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도 최소한 이 정도가 될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국에서 은행권 돈잔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 시중 은행들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박리다매 대출이었다. 저금리 기조에서 대출 총량이 늘어나면서 충격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3분기 기준 누적 이자 이익은 3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30조 6000억 원) 대비 1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총영업이익 중 비이자 부문 비중은 2018년 12.71%에서 지난해 13%로 올랐지만 올해는 12.76%로 다시 떨어졌다. 이같은 경영 상황을 놓고 은행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성과로 인정하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퍼포먼스를 내 그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의심스럽다"며 "금융권, 특히 은행은 공기업 성격이 강해 소비자에게 환원한 게 충분한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개인파산 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급속도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37조 900억 원으로 대출 잔액은 38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은행권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실적을 올려놓고 곶감만 빼먹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국민은행 노조는 성과급을 둘러싼 반복되는 갈등이 경영 목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성과급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영 목표를 공개하라는 노조의 요구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어 공시 의무 위반"이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다. 노사는 성과급 외에도 △사무전환직원 근무 인정 △전문직무직원 고용 안정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원스톱 평가 폐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수빈 기자 bean@

한화그룹 6개 금융사 '탈석탄' 선언… ESG경영 가속도

국내외 SPC 채권 인수 중단
친환경 관련 자산 투자 확대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6개 금융사가 5일 오전 금융사장단 결의와 실무검토를 거쳐 탄소제로시대를 향한 '한화금융계열사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한화그룹 6개 금융사가 금융사장단 결의와 실무검토를 거쳐 탄소제로시대를 향한 '한화금융계열사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캐롯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금융 6개사는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채권이라도 명백히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인수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5일 오전 금융계열사 대표이사들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탈석탄 금융'을 결의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업의 핵심 경영 원칙으로 자리잡았다"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제로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창립 68주년 기념사에서도 "기업은 경영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평가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기업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탈석탄 금융'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화력석탄발전 등에 대한 금융 투자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선언적 활동이다. '탈석탄 금융' 선언에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사회구성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조용병 회장 "복잡성의 시대 '계모형세'로 이겨내자"

2021년 신한경영포럼 개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4일 계열사 경영진과 함께 디지털 방식으로 개최한 '2021년 신한경영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코로나로 인한 시대의 환경을 '복잡성의 시대(Age of Complexity)'라고 표현하며, 복잡성을 이기기 위한 4가지 핵심 키워드인 '計謨形勢(계모형세)'를 제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4일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신한금융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행사를 비대면 'Digital 포럼'으로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어떻게 一流로 진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一流가 상징하는 '단단한 기반'과 '신속한 변화'를 중심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조 회장은 이날 첫번째 순서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올해 경영 슬로건 '기반은 단단하게! 변화는 신속하게!'를 발표하며, 그룹의 중기 전략 목표인 'FRESH 2020s'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조용병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시대의 환경을 '복잡성의 시대(Age of Complexity)'라고 표현하며, 혼란과 혼돈이 가중되는 시대에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리더들은 조직 내외적인 복잡성을 이해하고 명확한 리더십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복잡성을 이기기 위한 4가지 핵심 키워드인 '計謨形勢(계모형세)'를 제시했다.

조 회장은 복잡성을 이기는 첫번째 단계는 명료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략은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우며 방향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더들은 명료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놓은 축적의 힘을 바탕으로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복잡성을 이기는 두번째 단계로 능숙한 전술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략이 조직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전술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현재와 미래의 수익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경험 가치와 의미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 수립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새로운 시장에 과감히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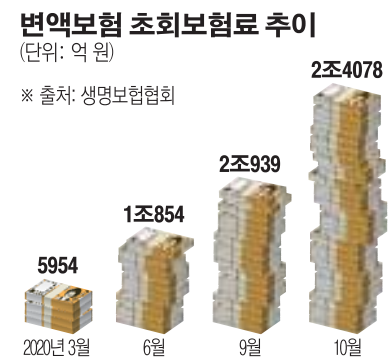
복잡성을 이기는 힘의 세번째는 이기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더의 생각을 공유하고 조직의 목표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장 직원들에게 확실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현장의 자율적 판단 하에 조직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전략은 신속한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스피드가 곧 경쟁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저하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서지연 기자 sjy@

동학개미에 웃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7년 만에 2兆↑

주식시장 활황에 수요 늘어
사모펀드 사태 이후 판매 확대



변액보험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7년 만에 2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3조 원도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닥을 쳤던 주식 시장이 활황 분위기로 접어들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5일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분기마다 2배 가량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5954억 원에서 2분기 1조0854억 원, 3분기에는 2조0939억 원을 기록해 2조 원을 넘겼다.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 원을 웃돈 건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10월에는 2조4078억 원을 기록해 올해는 거뜬히 3조 원을 넘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초회보험료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뒤 처음 낸 보험료로, 보험업계의 성장성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다.

이처럼 변액보험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소비자들의 수요가 확대됐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닥을 쳤던 주식 시장이 도리어 활황 상태로 접어들면서다. 올해 초까지 2000대 초반을 유지하던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에 접어들던 올해 3월 중 1500선마저 붕괴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5월 들어 2000선을 회복하더니 전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2944선을 돌파했다. 새해 첫 거래일에 2900선을 돌파하며 새역사를 쓴 것이다.

이런 장세가 지속되는 덕분에 변액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은 부쩍 커진 모습이다. 변액보험은 보험업계에서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상품으로 꼽힌다.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운영실적에 따라 보험금·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들의 여건도 변액보험에 힘을 싣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잇따른 대규모 사모펀드 손실 사태로 인해 은행들은 관련 상품 판매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예대마진이 축소된 상황에서 각종 금융상품 영업을 통한 수수료 수익 확대가 절실한 은행들로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자 은행들이 대안으로 주목한 상품이 바로 방카슈랑스 채널의 변액보험이다. 금융당국의 펀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보험 상품이면서도, 고객들에게 수익률을 어필할 수 있는 투자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한껏 두드러진 모양새다. 이처럼 고객과 은행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변액보험 매출은 당분간 양호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변액보험 가입시엔 15~20년의 장기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기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사업비와 가중평균 수익률이다. 가중평균수익률은 특정 회사의 전체 펀드 수익률을 한눈에 보여주는 수치"라며 "해당 회사 수익률의 민낯으로, 이를 보면 객관적인 자산운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식시장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변경을 통한 사후관리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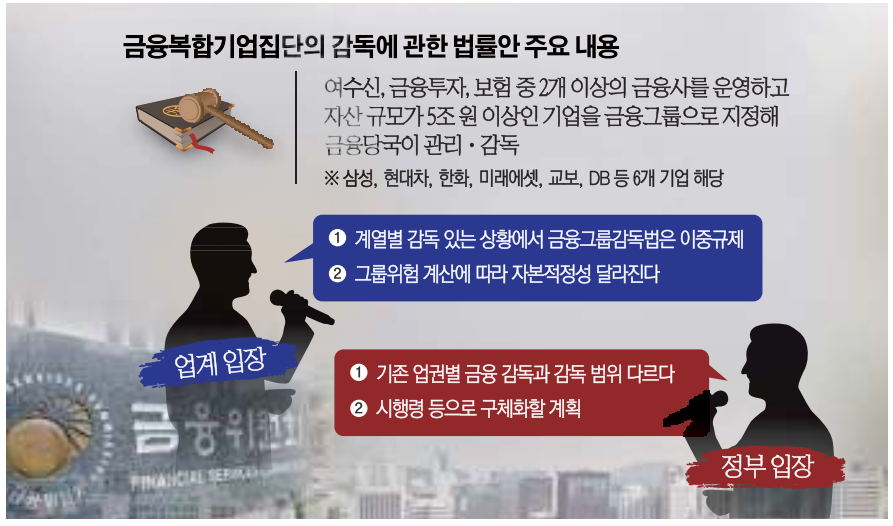
서지연 기자 sjy@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기업 "감독 한 번에 회사 정체 리스크 대비 위해 투자 어려워"

금융당국 "내부거래 등 감독 한계 그룹發 계열사 위험 전이 보는 것"

전문가 "애매모호한 감독 항목 필요자본 등 명확히 규정해야"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이 법의 주요 쟁점은 이중규제 여부다. 업계는 기존 개별업권에 대한 감독이 이미 있기에 금융그룹감독법은 옥상옥 규제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정부는 업계가 말하는 산업별 규제와 새로 생기는 법의 감독 범위가 다르다고 항변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고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비지주 금융그룹에도 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특정 금융계열사의 위험이 타 금융계열사까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금융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기업이다.

금융당국은 이 기업들에 크게 2가지 의무를 부여한다. 내부 통제·위험 관리와 건전성 관리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며 금융그룹 수준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그룹 명칭 사용 중지 또는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기업 "이중규제"… 당국 "IMF도 지적"=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금융그룹감독법이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감독에 대응을 잘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당국 검사 한 번에 회사가 정체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개별 업권에도 규제가 있는데 또 법으로 하면 그게 이중규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기업은 이중규제라고 반발하지만 우리나라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공백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지적한 사안이다. 지난 4월 IMF는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ASP)을 통해 비지주 금융그룹을 통합적으로 감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지주그룹과 달리 비지주 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규제를 받지 않아 비금융 부분에서 전이되는 위험을 평가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는 걸 근거로 들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온라인 합동브리핑에서 금융그룹감독법이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도 부위원장은 "기존 업권별 금융 감독은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한다"며 "이 법은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것을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간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 전체로서의 적정자본문제,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전파되는 위험전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집중 문제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본다는 것이다.

이 법의 핵심은 연결성에 있다. 현행 개별 금융사별로 이뤄지는 업권별 감독만으로는 같은 기업 집단에 있는 금융사 간의 내부 거래나 출자 등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해 기업 집단 간 자금의 흐름을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연결재무제표를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계열사가 각각 따로 공시할 때와 달리 연결재무제표는 자본을 중복 기입할 수 없다.

정부는 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이중규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별업권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이 상충했을 때 개별업권법이 우선한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금융그룹감독법 4조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크 대비, 과감한 투자 어려워"= 업계가 주시하는 것은 금융그룹감독법의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이다. 당국은 회사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 '적격자본'을 업권별 최소 요구자본의 합계액인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적격자본·필요자본이 100%를 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그룹은 당국에 경영계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당국은 직접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필요자본을 최소요구자본과 집중위험·전이위험을 가산한 것으로 규정했으나 금융그룹감독법에서는 집중위험·전이위험 가산을 빼고 그룹위험을 가산했다. 문제는 그룹위험의 계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점이다. 그룹위험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자본적적성의 수치가 달라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시행령으로 디테일을 잡는다는데 이미 법이 통과된 거면 디테일은 감독자 마음 아니냐"며 "필요자본을 많이 잡을수록 사용할 자본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시행 전에는 미래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왔는데 이제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둬야 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개별 회사 감독은 그 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초점이고 그룹 차원의 감독(금융그룹감독법)은 집단 내 위험이 전이되는지, 금융을 불공정하게 활용해서 계열사 내 다른 회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교수는 "감독 항목(필요자본의 그룹위험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해야 감독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 bean@

박창균 자본시장硏 선임연구위원

"금융그룹감독법, 금융사고 예방 장치"

"금융, 외부서 견제 않으면 부작용 규제 없는 영역에 도입 필요"

"감독은 금융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숙명. 금융은 외부에서 모니터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게 지난 400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자동차감독청도 조선사업감독청도 없는데 금융 분야에 감독 기관이 있는 건 금융의 속성 때문"이라며 "금융은 외부에서 견제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매 중단 규모가 1조 원대였던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사태가 사회 혼란을 부른 대표적인 금융 사고다.

박 연구원은 "금융은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허가 산업"이라며 "이 때문에 금융사들이 검사 받는 걸 비용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은 국가가 강력하게 간섭하는 대신 문제가 생기만 국가가 도와준다"며 "사전적으로 문제를 체크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는 뜻에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규제 공백을 메우는 법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연구원은 "사실상 같은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결정이 이뤄지고 소유 지배구조가 연결돼 있는 그룹은 이를 방지할 특별한 수단이 없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금융지주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있고 개별 회사에 대한 규제도 있다"며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금융그룹감독법은 이와 동일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중규제가 아니라 규제가 없던 영역에 있어야 할 규제를 제대로 도입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감독법의 필요성에 대해 박 연구원은 "A 계열사에 있는 B전자기업과 C생명보험이 한 번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쉽다"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금융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마련된 금융그룹감독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완전한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집중의 중요 요인 중 하나가 기업 집단 간의 내부 거래인데 현재 법은 정교하지 않다"며 "내부 거래를 감독 당국에 보고하라는 것에 그친 권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수빈 기자 bean@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한국생산성본부 · 미시간대학 조사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최우수 기업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Since 1998)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소개된 기업 및 대학 등은 고객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업 및 대학 등에게 찬사와 격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삼성물산 래미안
스마트폰	SAMSUNG Galaxy
이동전화 서비스	SK텔레콤
우유/발효유	한국야쿠르트
백화점	롯데백화점
생명보험	삼성생명 SAMSUNG
세탁기	LG TROMM
에어컨	LG WHISEN
주유소	GS칼텍스
베이커리	PARIS BAGUETTE
패스트푸드	롯데지알에스(주) 롯데리아
대형마트	롯데마트
담배	KT&G
음료	롯데칠성음료
전문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신용카드	삼성카드 SAMSUNG
렌터카	롯데렌탈
국제항공	ASIANA AIRLINES
제습기	LG WHISEN 제습기
은행	KB국민은행
은행	신한은행
IPTV	kt
TV	LG 올레드 TV
로봇청소기	LG 코드제로 ThinQ R9/M9
무선청소기	LG 코드제로 ThinQ A9S
의류건조기	LG TROMM 건조기
정수기	LG PuriCare™ 정수기

손해보험	삼성화재 SAMSUNG
대형승용차	HYUNDAI
준대형승용차	HYUNDAI
준중형승용차	HYUNDAI
RV	HYUNDAI
사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택배	우체국 택배
신용카드	비씨카드
병원	세브란스 SEVERANCE
IPTV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SK브로드밴드
냉장고	LG DIOS
국제전화	SK텔링크
오픈마켓	Gmarket
중형승용차	HYUNDAI
경형승용차	KIA
RV	KIA
영화관	롯데시네마
김치냉장고	LG DIOS 김치톡톡
소주	처음처럼
공기청정기	LG PuriCare™ 공기청정기
초고속인터넷	kt
증권 금융상품매매	삼성증권 SAMSUNG
증권 위탁매매	삼성증권 SAMSUNG
중형승용차	KIA
TV홈쇼핑	롯데홈쇼핑

아파트	23 years winner	1998~2020
스마트폰	9 years winner	2012~2020
	14 years winner	1998~2011 피처폰 부문 1위
이동전화 서비스	23 years winner	1998~2020
우유/발효유	23 years winner	1998~2020
백화점	18 years winner	2003~2020
생명보험	17 years winner	2004~2020
세탁기	15 years winner	2006~2020
에어컨	15 years winner	2006~2020
주유소	12 years winner	2009~2020
베이커리	12 years winner	2009~2020
패스트푸드	10 years winner	2011~2020
대형마트	10 years winner	2011~2020
담배	9 years winner	2012~2020
음료	8 years winner	2013~2020
전문대학	8 years winner	2013~2020
신용카드	7 years winner	2014~2020
렌터카	6 years winner	2015~2020
국제항공	6 years winner	2015~2020
제습기	6 years winner	2015~2020
은행	6 years winner	2015~2020
은행	4 years winner	2017~2020
IPTV	4 years winner	2017~2020
TV	3 years winner	2018~2020
로봇청소기	3 years winner	2018~2020
무선청소기	2 years winner	2019~2020
의류건조기	2 years winner	2019~2020
정수기	2 years winner	2019~2020
손해보험	20 years winner	2001~2020
대형승용차	9 years winner	2012~2020
	11 years winner	2001~2011 승용차 부문 1위
준대형승용차	9 years winner	2012~2020
	11 years winner	2001~2011 승용차 부문 1위
준중형승용차	9 years winner	2012~2020
	11 years winner	2001~2011 승용차 부문 1위
RV	15 years winner	2006~2020
사립대학교	14 years winner	2007~2020
택배	14 years winner	2007~2020
신용카드	13 years winner	2008~2020
병원	10 years winner	2011~2020
IPTV	10 years winner	2011~2020
초고속인터넷	10 years winner	2011~2020
냉장고	9 years winner	2012~2020
국제전화	7 years winner	2014~2020
오픈마켓	7 years winner	2014~2020
중형승용차	7 years winner	2014~2020
경형승용차	6 years winner	2015~2020
RV	5 years winner	2016~2020
영화관	5 years winner	2016~2020
김치냉장고	5 years winner	2016~2020
소주	5 years winner	2016~2020
공기청정기	3 years winner	2018~2020
초고속인터넷	3 years winner	2018~2020
증권 금융상품매매	2 years winner	2019~2020
증권 위탁매매	2 years winner	2019~2020
중형승용차	1 year winner	2020
TV홈쇼핑	1 year winner	2020

NCSI는 국가경쟁력 지표

- NCSI는 우리나라 국가, 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측정, 평가,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경쟁력 지표입니다.
- 한국생산성본부와 미시간대학이 공동으로 개발, 조선일보와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년 기준 조사 규모는 75개 산업, 316개 기업(대학), 총 표본수 88,032명입니다.

NCSI는 Global Standard Index

- 미국 고객만족도(ACSI) 발표 ('94~)
  ACSI, 미국 연방정부 고객만족도 평가 모델 채택 ('99~)
- ACSI 모델 도입 국가
  -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EPSI)
  - 한국(NCSI), 일본(JCSI), 싱가포르(CSISG) 등 아시아 주요국
  - 브라질(BCSI), 콜롬비아(CIV) 등 남미 주요국

NCSI 모델의 우수성

- Journal of Marketing 등 저명 학술지 발표를 통해 이론적 검증 완료 ('96)
-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행정 품질 지수 기본 모델로 채택 ('99)
- 공기업 고객만족도 측정, 평가 모델로 채택 ('99~'06)
- NCSI 10주년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NCSI의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공헌도 입증 ('08)

※ 현재 10년 이상 연속 1위 기업 · 'years winner' 연속 1위 기간 · 본 광고는 NCSI 75개 조사대상 산업의 1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광고입니다.

www.ncsi.or.kr

ACSI ACSI · kpc 한국생산성본부 · ChosunMedia 조선일보

‘코로나 시대’ 고객 만족도 상위 9곳 중 7곳 대형병원

NCSI 사상 최고점…1위 삼성물산

지난해 국가고객만족도(NCSI)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고객 중심 경영이 빛을 발하며 고객만족도 상승을 견인했다.

6일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 미국 미시간 대학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 2020년 국내 75개 업종, 316개 기업(대학)과 공공기관에 대한 NCSI를 조사한 결과, 77.0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의 76.7점에 비해 0.3점(0.4%) 상승한 수치로, 1998년 NCSI 조사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고치다.

NCSI는 국내 혹은 해외에서 생산돼 국내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 수준의 정도를 모델링에 근거해 측정, 계량화한 지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57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이다. 생산성 연구조사, 지수조사발표, 컨설팅, 교육, 자격인증 사업 등을 통해 개인, 기업,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 NCSI 조사결과, 전체 316개 조사대상 기업 중 아파트 업종의 삼성물산이 8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객만족도 상위 9위는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이 7개나 포진했으며, 도시철도의 대구도시철도공사가 포함됐다.

경제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를 할 수 있는 14개 경제 부문 중 7개 경제 부문의 고객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년과 비교가 가능한 전체 74개 업종 중 지난해 대비 고객만족도가 상승한 업종은 34개로 전년도 27개에 비해 증가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국야쿠르트·KT, 제조통신 분야 최우수

고객만족경영 우수 기업

서비스 분야에선 롯데마트·삼성카드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제조통신 분야에서 한국야쿠르트(우유발효유)와 KT(초고속인터넷)가 꼽혔다.

한국야쿠르트는 NCSI 조사에서 2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창립 최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원료 외부 판매에 나섰다. 50년 연구 기술력과 1000억 원 이상 설비투자, 4500여 종의 균주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B2C(기업과 소비자 거래) 중심 사업영역을 B2B(기업 간 거래)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산 유산균 원료 수입 대체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산균 원료 공급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T는 고객 중심 가치 실현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의 발전을 이루면서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KT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900만 명을 지난해 5월 달성했으며 국내 초고속인터넷 1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6월 속도뿐 아니라 댁내 인터넷 공간(커버리지)을 확장하는 ‘기가 와이 인터넷’을, 8월에는 통신사 중 처음으로 보급형 가정용 와이파이6 공유기 ‘기가 와이파이 홈 에이엑스’를 출시하며 언택트 시대 최적의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프로바이오틱스 플랜트 전경.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고객 만족 경영을 펼친 곳으로는 대형마트 부문에서는 롯데마트가, 신용카드 부문에서는 삼성카드가 선정됐다.

롯데마트는 온라인 배송 경쟁력을 높이면서 고객이 롯데마트를 ‘내 집 냉장고처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롯데마트 점포를 ‘온라인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고, 주문 후 물건 포장에 30분, 배송 완료까지 2시간가량이면 되는 초고속 배송 서비스 ‘바로 배송’ 서비스를 지난해 3월부터 도입했다.

삼성카드는 ‘A World of Trust over The Card(카드를 넘어 신뢰의 세상을 만든다)’라는 비전 아래, 차별화된 마케팅과 창의적인 상품·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생활 속 가치와 삶의 질을 지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병원업, 만족도 선두…전문대, 하락폭 가장 커

업종별 고객 만족도 순위

병원이 작년 업종별 고객만족도 순위에서 1등을 차지했다.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작년 업종별 고객만족도 순위에서 병원이 80점을 기록하며 선두에 올랐다. 2위에 오른 대형승용차, 준대형 승용차, 준중형 승용차, 태블릿PC는 79점을 기록했다. 전문대학은 68점을 기록하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지난해 NSCI 점수가 상승한 업종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업종 74개 가운데 34개 업종(46%)의 점수가 올랐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년 대비 2점 상승한 생명보험(77점), 아파트(77점), IPTV(78점), 이동전화서비스(78점), 준중형승용차(79점)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설계사의 영업 및 고객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신속하게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고객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준중형승용차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2017년 76점으로 시작한 이해 3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준대형, 대형 등급과 만족도 평가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런 성장은 체감 가능한 변화, 자체 크기 등 준중형승용차의 대형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19년 대비 작년 NCSI 점수가 하락한 업종은 총 8개이다. 그중에서도 전문대학이 전년 대비 하락 폭(-4)이 가장 컸다. 작년 3월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전환된 비대면 강의 수준이 학생들 눈높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2020년 NCSI 순위 및 점수

순위	기업	업종	점수
1	삼성물산	아파트	85
2	세브란스병원	병원	83
3	서울성모병원	병원	82
4	고대안암병원	병원	81
5	삼성서울병원	병원	81
6	아주대학교병원	병원	81
7	대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81
8	서울아산병원	병원	80
9	경희의료원	병원	80
10	현대자동차	준대형승용차	79
11	현대자동차	준중형승용차	79
12	한국야쿠르트	우유발효유	79
13	농심	라면	79
14	샤넬	여성용화장품	79
15	금강제화	남성정장구두	79
16	서울대학교병원	병원	79
17	영원아웃도어	아웃도어의류	79
18	롯데칠성음료	소주	79
19	GS건설	아파트	79
20	LG전자	무선청소기	79
21	SK텔링크	국제전화	79
22	LG전자	정수기	79
23	SK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	79
24	LG전자	김치냉장고	79
25	현대자동차	대형승용차	79
26	애플	태블릿PC	79
27	삼성전자	스마트폰	79
28	삼성전자	개인용컴퓨터	79
29	LG전자	에어컨	79
30	롯데렌탈	렌터카	79
31	성균관대학교	사립대학교	78
32	LG전자	세탁기	78
33	삼성전자	TV	78
34	기아자동차	준대형승용차	78
35	다이슨	무선청소기	78
36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78
37	삼성화재	손해보험	78
38	서울우유	우유발효유	78
39	로레알코리아	여성용화장품	78
40	G마켓	오픈마켓	78
41	삼성전자	무선청소기	78
42	LG전자	로봇청소기	78
43	파리바게뜨	베이커리	78
44	SK렌터카	렌터카	78
45	교보문고	서점	78
46	기아자동차	준중형승용차	78
47	SK브로드밴드	IPTV	78
48	KT	국제전화	78
49	대전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8
50	현대캐피탈	렌터카	78
51	비씨카드	신용카드	78
52	LG U+	국제전화	78
53	남양유업	우유발효유	78
54	삼성카드	신용카드	78
55	우정사업본부	택배	78
56	삼성전자	에어컨	78
57	KB국민은행	은행	78
58	삼성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8
59	LG전자	의류건조기	78
60	KT&G	담배	78
61	LG전자	공기청정기	78
62	LG전자	TV	78
63	네파	아웃도어의류	78
64	케이투코리아(K2)	아웃도어의류	78
65	롯데홈쇼핑	TV홈쇼핑	78
66	이엘씨에이한국	여성용화장품	78
67	KT	초고속인터넷	78
68	하이트진로	소주	78
69	삼성전자	태블릿PC	78
70	중앙대학교병원	병원	78
71	삼성전자	의류건조기	78
72	소다	남성정장구두	78
73	오뚜기	라면	78
74	롯데마트	대형마트	78
75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78
76	현대홈쇼핑	TV홈쇼핑	78
77	LG전자	냉장고	78
78	SK매직	정수기	78
79	LG전자	개인용컴퓨터	78
80	올리브영	헬스앤뷰티전문점	78
81	삼성증권	증권 위탁매매	78
82	삼성전자	냉장고	78
83	애플	스마트폰	78
84	KT	이동전화서비스	78
85	코웨이	정수기	78
86	KT	IPTV	78
87	삼성생명	생명보험	78
88	한양대학교병원	병원	78
89	우정사업본부	우편	78
90	제주항공	저비용항공	78
91	삼성물산(빈폴)	남성캐주얼의류	78
92	영남이공대학교	전문대학	78
93	신한은행	은행	78
94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	78
95	GS SHOP	인터넷쇼핑몰	78
96	LG U+	이동전화서비스	78
97	상수도	상수도	78
98	탠디	남성정장구두	78
99	롯데칠성음료	음료	78
100	기아자동차	대형승용차	78
101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78
102	하이트진로	맥주	78
103	청호나이스	정수기	77
104	한국지엠	준중형승용차	77
105	하나은행	은행	77
106	NH투자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7
107	르노삼성자동차	준대형승용차	77
108	매일유업	우유발효유	77
109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77
110	형지에스콰이아	남성정장구두	77
111	위니아딤채	에어컨	77
112	GS칼텍스	주유소	77
113	삼성전자	공기청정기	77
114	삼양식품	라면	77
115	롯데시네마	영화관	77
116	HP	개인용컴퓨터	77
117	KT	인터넷전화	77
118	삼성전자	세탁기	77
119	한국지엠	준대형승용차	77
120	LG U+	IPTV	77
121	코카콜라음료	음료	77
122	아모레퍼시픽	여성용화장품	77
123	버거킹	패스트푸드	77
124	르노삼성자동차	준중형승용차	77
125	LG U+	초고속인터넷	77
126	CJ오쇼핑	TV홈쇼핑	77
127	미래에셋대우	증권 금융상품매매	77
128	롭스	헬스앤뷰티전문점	77
129	KB손해보험	손해보험	77
130	롯데칠성음료	맥주	77
131	코웨이	공기청정기	77
132	에어부산	저비용항공	77
133	쿠쿠전자	정수기	77
134	쿠쿠전자	전기밥솥	77
135	현대자동차	중형승용차	77
136	예스24	서점	77
137	기아자동차	경형승용차	77
138	한국투자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7
139	블랙야크	아웃도어의류	77
140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77
141	현대자동차	RV	77
142	현대백화점	백화점	77
143	랄라블라	헬스앤뷰티전문점	77
144	하이네켄	맥주	77
145	쿠팡	오픈마켓	77
146	아시아나항공	국제항공	77
147	LG생활건강	여성용화장품	77
148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패밀리레스토랑	77
149	SK스토아	T커머스	77
150	CJmall	인터넷쇼핑몰	77
151	롯데백화점	백화점	77
152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77
153	코오롱인더스트리	아웃도어의류	77
154	광주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7
155	현대해상	손해보험	77
156	네이버	검색포털	77
157	금복주	소주	77
158	빙그레	우유발효유	77
159	11번가	오픈마켓	77
160	코스트코홀세일	대형마트	77
161	DB손해보험	손해보험	77
162	동일드방레	남성캐주얼의류	77
163	이마트	대형마트	77
164	롯데건설	아파트	77
165	현대Hmall	인터넷쇼핑몰	77
166	키움증권	증권 위탁매매	77
167	한화생명	생명보험	77
168	CJ대한통운	택배	77
169	삼보컴퓨터	개인용컴퓨터	77
170	KFC	패스트푸드	77
171	기아자동차	중형승용차	77
172	뚜레쥬르	베이커리	77
173	대우건설	아파트	77
174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77
175	BAT 코리아	담배	77
176	KT	유선전화	77
177	팔도	라면	77
178	롯데ON	인터넷쇼핑몰	77
179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77
180	오비맥주	맥주	77
181	KB국민카드	신용카드	77
182	광주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77
183	동아오츠카	음료	77
184	LF(헤지스)	남성캐주얼의류	77
185	기아자동차	RV	77
186	LG전자	스마트폰	77
187	JTI 코리아	담배	77
188	GS홈쇼핑	TV홈쇼핑	77
189	LG전자	제습기	77
190	포스코건설	아파트	76
191	현대건설	아파트	76
192	CJ CGV	영화관	76
193	독립문(피에이티)	남성캐주얼의류	76
194	대한항공	국내항공	76
195	쌍용자동차	RV	76
196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	76
197	엘칸토	남성정장구두	76
198	한국지엠	경형승용차	76
199	SK브로드밴드	유선전화	76
200	린나이	의류건조기	76
201	티웨이항공	저비용항공	76
202	무학	소주	76
203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	76
204	전남대학교	국립대학교	76
205	한진	택배	76
206	르노삼성자동차	중형승용차	76
207	NS홈쇼핑	TV홈쇼핑	76
208	던필드앨파	남성캐주얼의류	76
209	오텍캐리어	에어컨	76
210	디아지오	맥주	76
211	신세계백화점	백화점	76
212	SSG닷컴	인터넷쇼핑몰	76
213	해태htb	음료	76
214	위닉스	제습기	76
215	구글코리아	검색포털	76
216	원광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6
217	한국씨티은행	은행	76
218	한국철도공사	철도	76
219	CJ오쇼핑플러스	T커머스	76
220	위니아대우	세탁기	76
221	싱가포르항공	국제항공	76
222	한양대학교	사립대학교	76
223	진에어	저비용항공	76
224	LG U+	인터넷전화	76
225	애슐리	패밀리레스토랑	76
226	K쇼핑	T커머스	76
227	대한항공	국제항공	76
228	메가박스	영화관	76
229	한국투자증권	증권 위탁매매	76
230	SK에너지	주유소	76
231	KB증권	증권 금융상품매매	76
232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76
233	위니아딤채	제습기	76
234	영풍문고	서점	76
235	홈플러스	대형마트	76
236	우리은행	은행	76
237	VIPS	패밀리레스토랑	76
238	옥션	오픈마켓	76
239	건국대학교병원	병원	76
240	맘스터치	패스트푸드	76
241	메리츠화재	손해보험	76
242	미래에셋대우	증권 위탁매매	76
243	신한카드	신용카드	76
244	웅진식품	음료	76
245	전력공급	전력공급	76
246	미래에셋생명	생명보험	76
247	위니아대우	냉장고	76
248	이스타항공	저비용항공	76
249	이화여자대학교	사립대학교	76
250	카카오	검색포털	76
251	한국지엠	중형승용차	75
252	대림산업	아파트	75
253	아시아나항공	국내항공	75
254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75
255	경희대학교	사립대학교	75
256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75
257	쿠첸	전기밥솥	75
258	전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5
259	캐세이패시픽항공	국제항공	75
260	인터파크	서점	75
261	세무행정	세무행정	75
262	홈앤쇼핑	TV홈쇼핑	75
263	S-OIL	주유소	75
264	신한생명	생명보험	75
265	가천대길병원	병원	75
266	교보생명	생명보험	75
267	대전보건대학교	전문대학	75
268	경찰행정	경찰행정	75
269	신세계TV쇼핑	T커머스	75
270	타이항공	국제항공	75
271	T.G.I.프라이데이스	패밀리레스토랑	75
272	SC제일은행	은행	75
273	쓰레기수거	쓰레기수거	75
274	현대카드	신용카드	75
275	푸르덴셜생명	생명보험	75
276	신한금융투자	증권 금융상품매매	75
277	NH투자증권	증권 위탁매매	75
278	현대홈쇼핑+shop	T커머스	75
279	대덕대학교	전문대학	75
280	티몬	오픈마켓	74
281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74
282	오렌지라이프	생명보험	74
283	충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4
284	숙명여자대학교	사립대학교	73
285	아주대학교	사립대학교	73
286	신성대학교	전문대학	73
287	경북대학교	국립대학교	73
288	강원대학교	국립대학교	73
289	충남대학교	국립대학교	73
290	경남정보대학교	전문대학	73
291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립대학교	73
292	경상대학교	국립대학교	73
293	동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73
294	건국대학교	사립대학교	72
295	조선이공대학교	전문대학	72
296	부산대학교	국립대학교	72
297	동국대학교	사립대학교	71
298	중앙대학교	사립대학교	71
299	충청대학교	전문대학	71
300	인하대학교	사립대학교	71
301	서강대학교	사립대학교	70
302	연세대학교	사립대학교	70
303	고려대학교	사립대학교	70
304	홍익대학교	사립대학교	69
305	안산대학교	전문대학	69
306	신구대학교	전문대학	69
307	제주대학교	국립대학교	68
308	유한대학교	전문대학	68
309	인덕대학교	전문대학	67
310	마산대학교	전문대학	65
311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	64
312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문대학	62
313	명지전문대학	전문대학	61
314	두원공과대학교	전문대학	61
315	청암대학교	전문대학	60
316	동서울대학교	전문대학	56

※순위는 NCSI 점수의 소수점을 고려한 결과임

〈초박막 강화유리〉

"삼성디스플레이, 美·中 폴더블폰에 UTG 패널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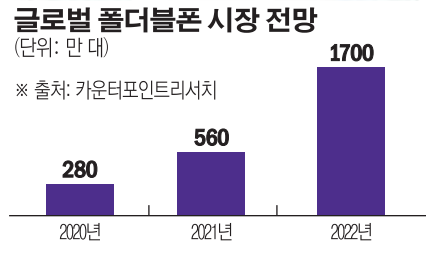
업계, 구글·오포·비포·샤오미로 거래 확장 전망
폴더블폰 시장 올 2배↑…경쟁자 없어 시장 석권

삼성디스플레이가 올해 중국 오포, 비보, 샤오미와 구글 등에 UTG(초박막 강화유리) 패널을 공급한다. 지난해까지 삼성디스플레이는 UTG 패널 전량을 삼성전자에 공급했다.

5일 시장조사업체 DSCC(디스플레이서플라이체인)의 창립자 겸 사장인 밥 오브라이언은 '올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10가지 예측'이란 보고서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올해는 구글 등 여러 업체로 UTG패널 공급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폴더블폰 시장은 갤럭시Z폴드2, 갤럭시Z플립 등을 내놓은 삼성전자의 독무대였다.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물러났고, 다른 제조사들 역시 마땅한 폴더블폰을 상용화하지 못했다.

특히 같은 기간 폴더블폰의 84%는 UTG 패널을 탑재했는데, 모두 삼성이라는 단일 브랜드에서 나온 것이란 한계가 있었다. 보고서는 "삼성디스플레이는 단일 회사가 폴더블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UTG가 적용된 폴더블 패널을 다른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중국 오포가 기대된다"며 "또 비보, 샤오미 및 구글은 각각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UTG 패널이 포함된 폴더블 모델을 한 개 이상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구글은 올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폴더블 픽셀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포 역시 롤러블 및 폴더블폰을 준비 중이다.

보고서는 또 "샤오미는 올해 3가지 유형의 폴더블(아웃폴딩·인폴딩·클램쉘)을 모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폴딩과 클램셸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패널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고객사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UTG는 폴더블폰 대중화 열쇠 중 하나다. 1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에 채용된 PI(투명 폴리이미드) 소재 커버윈도우보다 내구성이나 심미감, 경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2월 업계 최초로 UTG를 상용화했다. 프랑스 기술인증사 뷰로베리타스는 삼성디스플레이 UTG가 20만 회 폴딩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또 'SAMSUNG UTG'라는 브랜드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전 세계 38개국에 상표를 출원했다. 중국 선두 패널 업체인 BOE가 폴더블 UTG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단기간 부품 완성도를 높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280만대로 전망된다. 올해 폴더블폰 시장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르면 2022년 하반기에 애플의 첫 폴더블 폰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해 폴더블폰 시장은 약 1700만대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역시 올해 3~4가지 폴더블 제품을 출시한다. 기존 갤럭시Z플립·폴드 라인에 보급형 모델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갤럭시Z플립2와 갤럭시Z폴드3를 포함해 각각 라이트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重·삼성重 나란히 새해 첫 수주 성공

현대重 컨선 6척 9000억·삼성重 LNG선 2000억 규모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새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수주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에 있는 선사와 1만5000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의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9000억 원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4척,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2척씩 건조돼 2023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건조될 선박에는 1회 충전만으로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 운항할 수 있는 대형 LNG 연료탱크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친환경 연료사용과 최적의 연료공급시스템을 통해 선박 운영비용을 대폭 개선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한국조선해양의 조선 부문 수주 목표액은 전년(110억 달러) 대비 35% 상승한 149억 달러이다.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해운사인 팬오션으로부터 1993억 원 규모의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수주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해당 선박은 2023년 4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최신 멤브레인 타입 화물창에 재액화 시스템이 설치돼 화물량 손실을 최소화했다. 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 및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을 지녀 친환경 규제에 적합하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왼쪽)과 삼성중공업의 LNG 운반선. 사진제공 각 사

한편 한국은 지난해 세계 선박 수주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총 1792만CGT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이 각각 798만CGT, 673만CGT를 수주하며 세계 1,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지난달 말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연이어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7척이 빠져있어 해당 물량(약 145만CGT)을 더하면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달성할 것이 유력하다고 업계는 해석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현대차, 中에 수소전지 공장…日 토요타에 맞불

中 선점 위해 국가 핵심기술 수출
토요타, 현지 연구 합자회사 설립

현대자동차가 중국 현지에 수소연료전지 조립공장을 추진한다.

일찌감치 중국 시장 선점에 나선 일본 토요타와 본격적인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관련 업계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그룹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수출을 승인했다.

해당 시스템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만큼 기술 수출에 따른 영향을 심사했고,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판단,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은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뽑아내는 기술이다. 수소전기차는 물론, 드론과 선박·열차 등으로 활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미래형 에너지의 궁극점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시스템인 만큼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이를 수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현대차그룹은 중국 광둥(廣東) 성 광저우(廣州)시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장을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 스택의 셀을 국내에서 제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셀을 중국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현재 글로벌 주요 국가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를 제외하면 양산 시스템을 갖춘 곳은 일본 토요타와 혼다가 전부다. 이들은 일찌감치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에 진출해 있다.

현대차가 중국에 조립공장을 추진하는 만큼 이들과의 맞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토요타의 경우 중국 수소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2017년 장쑤성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하고, 지난해 6월 광저우 자동차그룹 등과 연구개발 합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기아차, 새 로고 오늘 공개…모빌리티 전환 '플랜S' 가속

사명도 車 빼고 '기아'로 갈 듯

기아자동차가 새로운 로고(CI)와 사명을 6일 공개한다.

기아차는 이날 오후 7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규 로고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할 전망이다. CI는 회사를 나타내는 로고다. 현재 기아차의 CI는 붉은색 타원 안에 영어로 'KIA'가 적힌 형태로 2004년부터 사용 중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는 활기찬 이미지와 함께 세계무대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아를 상징한다.

기아차 새 로고 상표 디자인을 살펴보면 영문 알파벳이 날렵하게 하나로 이어지는 형태다. 기아차는 2019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이매진 바이 기아'를 선보이며 새로운 로고 디자인을 공개한 바 있다. 슬로건도 기존의 '파워 투 서프라이즈'(The Power to Surprise)를 '무브먼트 댓 인스파이어스'(Movement that inspires)로 바꿀 전망이다.

기아차 기존 CI(왼쪽)와 기아 신규 예상 CI.

또한, 사명 역시 조만간 '기아자동차(Kia Motors)'에서 자동차(Motors)를 뺀 '기아(KIA)'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의 사명 변경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중심 기업에서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플랜S'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아차는 지난해 초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회사의 중장기 미래전략인 '플랜 S'를 발표하며 회사를 내연기관 제조사에서 전기차 제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고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정체성, 기업 이미지, 디자인 방향성 전 부문에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LG "혁신 멈추지 않을 것" CES 2021 영상편지

LG전자가 오는 11일부터 시작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1을 앞두고 사전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5일 LG전자는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 '삶은 계속된다(Life is ON Manifesto)'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LG전자 전시 주제와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겼다.

LG전자는 광고영상에서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해왔지만, LG는 고객에게 편의성, 재미, 안전함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LG전자는 CES 2021에 '소중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LG와 함께 홈 라이프를 편안하게 누리세요(Life is ON - Make yourself @ Home)'라는 주제로 참가한다.

CES 2021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LG전자는 고객이 기존의 오프라인 전시와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LG전자 사이트에 인터넷 방송, 3D 가상 전시관 등 다양한 전시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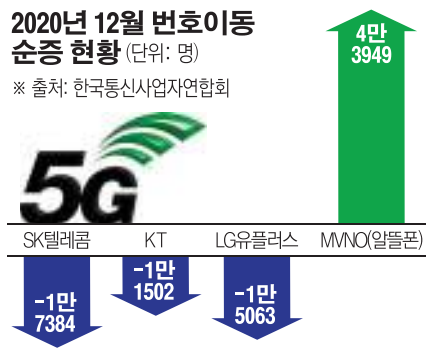
LG전자는 티저에 더해 CES 2021 전용 홈페이지(Exhibition.LG.com)에서도 CES에서 선보일 다양한 콘텐츠를 예고하는 이미지들을 공개했다.

한편 이날 LG디스플레이는 미국의 눈 안전 특화 인증기관 '아이세이프(Eyesafe)'로부터 OLED 패널이 눈에 안전하다는 의미의 '아이세이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아이세이프 인증은 세계적 권위의 시험인증기관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TV 패널이 이 인증을 받은 것은 LG디스플레이의 OLED가 처음이다. LG디스플레이 OLED는 2019년과 2020년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낮은 블루라이트'와 '플리커 프리'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아이세이프 인증까지 획득했다. LG디스플레이는 11일 개최되는 CES 2021에서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생각한 디스플레이 솔루션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이통사, 5G 중저가 요금 출시 '알뜰폰 성장세' 제동 걸리나

KT 이어 SKT·LG유플러스도 月 3만~5만원대 요금제 잇따라 "알뜰폰 경쟁력 저해" 우려 시선 갤럭시S21 조기 출시도 악재로



이동통신(MNO) 사업자들이 내놓는 5G 중저가 요금제가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에 제동을 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사들은 '시장이 다르다'는 논리이지만,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LG유플러스는 4만~5만 원대 중저가 5G 요금제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5G 슬림+'는 월 4만7000원에 5G 데이터 6GB를 쓸 수 있다. 데이터 제공량 소진 뒤에는 40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5G 라이트+'는 월 5만5000원에 데이터 12GB를 제공한다. 데이터 소진 시 1Mbps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서비스한다.

5G 중저가 요금제는 지난해 10월 KT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 뒤 SKT와 LG유플러스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SKT는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에 신규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월 3만 원대에 9GB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와 월 5만 원대에 데이터 200GB가량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로 알려졌다.

이통 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로 경쟁하면서 '알뜰폰의 약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지난해 알뜰폰은 2019년과 달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동전화 번호 이동자 수 현황에서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순증 가입자는 4만39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로 따졌을 때 올해 최대 규모다. 11월에는 3만1674명, 10월 1만3039명, 9월 1만2433명, 8월 9909명, 7월 6967명, 6월 5138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알뜰폰으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는 순증했고, 그 증가세도 가파르게 이어졌다.

반면 12월 기준 SKT, KT, LG유플러스의 번호 이동은 순감해 각각 -1만7384명, -1만1502명, -1만5063명을 기록했다. 번호이동으로 새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뺏겼다는 뜻이다. 이 같은 추세를 종합해보면 통신사 약정이 끝나고 알뜰폰으로 갈아타거나 단말기를 오픈마켓 등에서 직접 구입해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알뜰폰의 파죽지세가 수능이 포함된 12월에도 계속됐다는 점이다. 통상 수능 이후에는 휴대폰 교체 수요가 높아진다. 특히 수험생활 동안 알뜰폰 요금제를 쓰다가 수능 뒤 최신폰으로 바꾸는 추세가 두드러져 통신사들도 최신폰의 공시지원금을 낮추는 등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2019년 수능일이 있던 11월에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은 3만여 명 순감했다. 반면 통신 3사 모두 1만여 명 내외로 번호이동이 순증했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모습이 정반대로 역전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알뜰폰의 성장이 아이폰12 출시와 맞물려 시너지를 냈다고 분석한다. 아이폰의 경우 국내 제조 휴대폰과 비교해 공시지원금이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아이폰12 시리즈의 수혜를 알뜰폰 시장이 가져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이폰 단말기를 자급제로 구입하고, 요금제는 알뜰폰을 쓰는 사용자들이 '알뜰폰 돌풍'을 이어가게 해줬다는 설명이다.

5G 중저가 요금제 경쟁과 삼성 갤럭시S21 조기 출시 등은 이 같은 알뜰폰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신규 요금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행 유보신고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정부가 1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 반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접수된 SKT의 신규 요금제에 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심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이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KT "게임박스에서 한게임 즐기세요" KT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게임박스'를 한게임 포털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KT는 NHN과 협력해 NHN의 게임 포털 한게임에 자사의 게임박스를 론칭했다고 5일 밝혔다. 한게임 이용자들은 KT 게임박스가 제공하는 110여 종의 고사양 스트리밍 게임을 즐길 수 있다. PC로 한게임 제공 게임박스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ID를 생성해 PC와 모바일, IPTV로 언제 어디서나 게임박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KT

"산업수도 울산에 동남권 AI 허브 조성"

UNIST '인공지능 혁신 파크' 출범

재직자 교육·창업지원 등 사업 12일 비대면 사업설명회 개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 혁신 파크(AI Innovation Park·사진)'가 공식 출범한다.

UNIST는 '인공지능 혁신 파크 사업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국 가동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사무국은 1월부터 각 분야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 첫 단추로 12일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단지 내 산학융합캠퍼스에 있는 인공지능 혁신 파크는 지역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 연구,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산업 수도인 울산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제조 혁신을 도입해 실질적인 산업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울산광역시에서도 인공지능 혁신 파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국비와 시비를 합쳐 약 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인공지능 혁신 파크의 핵심 사업은 크게 산업체 재직자 교육, 산학협력 연구, 창업지원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재직자 교육은 UNIST 인공지능대학원이 그 중심에 선다. '인공지능(AI) 노바투스 아카데미아'로 명명된 교육은 오는 2월 개강을 예정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인공지능 이론 교육(2개월)과 실습(3개월)을 진행한다. 교육은 산업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확보에 집중되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실습과제에는 최대 1억 원 규모의 산학과제 지원이 진행될 계획이다.

인공지능 융합을 위한 산학협력 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지역의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AI+X 랩(Lab)' 형태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회원들과 함께 'AI+자동차', 'AI+선박', 'AI+헬스케어', 'AI+반도체' 등의 융합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산학공동 과제 유치 및 수행을 위해 협력한다.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혁신 기업의 보육 공간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관련 벤처기업들에 산학융합캠퍼스의 공간을 임대하는 것으로, 입주 기업들은 UNIST 연구진과의 협력 기회는 물론 교육, 세미나, 컴퓨팅 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훈 UNIST 총장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제조 혁신은 동남권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인공지능 혁신 파크가 동남권 지역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혁신 허브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안랩, 조직개편… "클라우드 사업 강화"

안랩이 5일 판교 안랩 사옥에서 '2021년 온라인 시무식'을 개최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석균〈사진〉 안랩 대표는 이날 시무식에서 2019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안랩의 중장기 미래 전략 'N.EX.T 무브 안랩 4.0'에 기반해 2021년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N.EX.T 무브 안랩 4.0'은 △New AhnLab: 미래성장을 위한 기업구조 및 조직 혁신 △EXtend Security: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영역 확장 △Transform Technology: 차세대 기술 역량 적극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강 대표는 올해 '디지털 뉴 노멀'을 준비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경영체계 강화 △클라우드 중심 사업 강화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등의 경영 방침을 제시했다.

안랩은 고객중심의 영업조직 재편과 클라우드 사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제품과 서비스별로 나뉘어 있던 기존 사업부 조직을 '사업부문'과 '서비스사업부문'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부에 분산됐던 제품별 영업조직을 고객 중심의 산업별 영업조직으로 통합해 '사업부문'에 편성했다. 또, 보안관제와 컨설팅 등 전문적인 보안서비스를 수행하는 부서를 '서비스사업부문'으로 구성했다.

기존 태스크포스(TF)방식으로 운영하던 클라우드 관련 부서도 정식 부서로 편성했다. 안랩은 연구소 내 '클라우드개발실'과 서비스사업부문 내 '클라우드사업본부'를 신설해 클라우드 사업을 더욱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직 효율화 관점에서 사업부별로 나뉘어 있던 기술 지원과 마케팅 등 기능 조직을 전사 차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기술지원본부'와 '마케팅본부'를 신설했다.

안랩은 김형준 상무(전 컨설팅본부장) 상무보를 상무로 승진 발령해 서비스사업부문장으로 선임했다. 이외에 △민성희 전략사업본부장 △김경희 기술연구실장 △김덕환 재무기획실장이 각각 상무보로 승진했다.

강 대표는 "코로나19의 희망이 백신이듯 새로운 디지털 시대 보안의 희망은 안랩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2021년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기보, 공휴일 쉬는 中企에 우대보증 제공

유급휴일 전환 운전자금 지원… 보증비율도 90%로 상향

기술보증기금(기보)이 관공서 공휴일에 쉬는 중소기업에 우대보증을 제공한다.

기보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우대보증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3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공서 유급 휴일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대보증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 중 해당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사업(장)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이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도 기준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도 0.3%포인트 감면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기보의 우대보증 시행뿐만 아니라 병역지정업체 평가와 해외판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300만원 유모차 불티… 저출산 잊은 유아용품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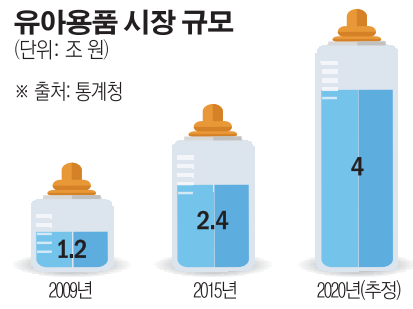
#. 지난해 첫 손자를 본 김정애(61) 씨는 아들 내외의 성화에 못이겨 3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선물했다. 유모차가 냉장고 한대 가격과 맞먹는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랐다. 방 하나를 아이 방으로 꾸미는 수리 비용에다 출산준비물을 구입하는데 웬만한 경차 한대 값을 쏟아부었다는 설명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출산 '선택'한 MZ세대 부부들 고가 용품에 과감히 지갑 열어
작년 시장규모 4조 넘어선 듯

신년 벽두부터 출산율 0.7명 대 시대가 시작될 정도로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있지만 유아용품 시장은 오히려 커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자리잡으면서 출산을 선택한 부부들이 고가 유아용품 구매를 주저하지 않아서다. 아이에게 보다 좋은 제품, 또 육아에 편리하다면 과감히 지갑을 여는 것이 MZ세대 부모의 특징이다 보니 울음소리가 줄어도 유아용품 시장이 더 탄탄해진 이유다.

지난해 신생아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이하를 기록했다. 2000년 신생아수가 60만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20년만에 반토막 아래로 급감한 셈이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수는 27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줄었다. 매년 출산율 급감으로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된 대한민국이지만 부모들이 신생아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유아용품 시장 성장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만 해도 1조 2000억 원대에 그쳤던 유아용품 시장은 2015년 6년만에 두배 성장한 2조4000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다시 5년 만에 1.7배 가량 커졌다.



아이를 위한 과감한 소비 덕에 고가의 프리미엄 유아용품은 품절사태를 빚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 기존 유아용품 관련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스토케의 유아의자 브랜드 '트립트랩'은 지난해 품절됐다가 최근 재입고됐다. 스토케 트립트랩은 최근 9000개가 추가 입고됐으나 입고된 제품의 절반 이상이 사전 예약 물량이어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트립트랩의 세트 가격대는 40만원대 후반으로 다소 고가임에도 영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앞세워 인기를 얻고 있다.

스토케의 프리미엄 유모차인 익스플로리는 국내 도입 초창기만 해도 '강남 유모차'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제품의 가격은 200만 원 내외다. 스토케 익스플로리와 맞먹는 부가부, 오르빗 등 200만~300만원대 유모차 브랜드들도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스토케와 오르빗의 경우 국내 기업이 인수하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한국 엄마들이 선택한 브랜드라는 점이 국내 기업의 인수에 불을 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예전엔 아이를 재우거나 달랠 때 업어주거나 토닥였다면 요즘에는 바운서가 필수 용품이 됐고 영유아 침대는 수백만원을 호가해도 날개돋힌 듯 팔려나간다. 아이를 업을 때 쓰는 포대기 대신 2000년대부터 등장한 아기띠 가격도 20만~3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10여년 전만 해도 불모지나 다름없던 배달 이유식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도 늘고 있다. 풀무원 '베이비밀'과 베베쿡이 양분하던 배달 이유식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부모들의 니즈와 맞물려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와 분유 업체인 아이배넷, 남양유업까지 가세했다.

유아용품 업계에서는 출산율이 줄어들지만 유아용품 구매 객단가는 커지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를 하나만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하나뿐인 아이에게 좋은 제품을 구매해주려는 니즈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며 "여기에다 편리함을 중시하는 MZ세대 부모들은 비용이 크게 들더라도 육아가 편리해지는 편리미엄 유아용품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만큼 관련 시장은 출산율과 상관 없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편의점, 프리미엄 베이커리로 '빵식족' 유혹

GS25 빵 브랜드 '브레디크'
CU '샹달프 브레드' 출시
치킨·커피 이어 고객확보 나서

편의점 업계에 프리미엄 베이커리 열풍이 거세다. 치킨과 원두커피로 영역 침범에 나선 편의점들이 없는 곳이 없는 촘촘한 점포망을 무기로 이번엔 빵집을 겨냥했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 THE FRESH(GS더프레시)가 새로운 빵 브랜드 'BREADIQUE(브레디크)'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브레디크'는 브레드(빵, Bread)에 규모는 크지않더라도 질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뜻하는 부티크(Boutique), 새로움과 특별함, 독특함을 의미하는 유니크(Unique)의 합성어로 하이퀄리티를 추구하는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를 의미한다.

'브레디크'로 처음 선보이는 상품은 '브레디크 순우유식빵', '브레디크 순우유스틱빵', '브레디크 순우유모닝롤', '브레디크 레몬큐브파운드' 등 총 4종이다. '순우유식빵'은 정말 맛있는 식빵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물 대신 1A등급 국내산 우유로만 반죽해 부드러운 식감과 우유의 풍미를 살렸고, '순우유스틱빵', '순우유모닝롤' 도 국내산 1A등급, 1등급 밀가루를 사용했다.

CU 프리미엄 베이커리 샹달프 브레드.

같은날 세븐일레븐은 식품영양 전문가 숙명여대 한영실 교수 맞춤식품연구실과 프리미엄 베이커리 2종 '밤단팥빵', '연유크림소보로빵'을 내놨다. 이 상품에는 밤, 현미, 찹쌀, 감자, 땅콩, 마 등 6가지의 건강 재료와 함께 1등급 밀가루와 히말라얀 핑크솔트 등 고품질 원재료도 함께 사용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3월 냉동 베이커리 '생생빵상회'를 출시해 프리미엄 빵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건강 콘셉트의 프리미엄 베이커리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CU는 업계 최초로 프리미엄 베이커리 라인을 론칭하고 건강빵과 함께 잼, 소스 등을 세트로 구성한 차별화 상품 10여 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했다. 첫번째 상품으로 출시되는 '샹달프 브레드'는 설탕 등 인공 감미료를 전혀 넣지 않고 100% 과일을 졸여 만든 프랑스 프리미엄 잼 샹달프잼과 담백한 맛의 건강빵을 한 세트로 구성한 상품이다.

편의점 업계가 도시락과 치킨, 원두커피에 이어 프리미엄 베이커리 사업까지 나서는 것은 먹거리 중심의 일상 종합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고 있어서다. 단순히 높은 접근성을 무기로 유사한 상품을 내놔 고객 발걸음을 이끄는 데서 벗어나 신선식품과 식·음료 등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충성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빵식'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빵으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빵 및 떡류'의 가계당 월평균 소비 지출액은 지난해 3분기 3만 원으로 2019년 3분기(2만7000원)에 비해 11.6% 증가했다.

CU에서도 지난해 1일부터 21일까지 식빵과 모닝롤, 크로와상 등 식사대용 베이커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1% 급증했다.

하지만 불황에 시름이 깊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업계는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베이커리 가맹점 수는 7815개에서 2018년 7354개로 461개 줄었다. 경쟁 심화에 따른 폐업 때문으로 풀이되는 상황에서 편의점 4만 개 가량이 경쟁자로 떠오르게 되는 셈이다. 남주현 기자 jooh@

홈플러스 '건강박람회' 홈플러스가 신년을 맞아 국민 건강 지킴이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홈플러스는 13일까지 종근당건강, 녹십자웰빙, 뉴트리원 등 34개 건강 브랜드가 참여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과 홈트레이닝용품 등 건강 관련 상품 230여 종을 한데 모은 '건강박람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서울 양천구 홈플러스 스페셜 목동점에서 모델들이 건강기능식품과 홈트레이닝용품 등 다양한 건강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CJ올리브영,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쇼피'에 공식 브랜드관 론칭

CJ올리브영은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에 공식 브랜드관인 '올리브영관'을 론칭한다고 5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은 쇼피 내 숍인숍 형태로 브랜드관을 오픈하고 자체 화장품 브랜드 판매에 나선다. 이를 시작으로 K-뷰티에 관심이 많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한국 화장품을 소개해나갈 예정이다.

쇼피는 싱가포르와 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7개국에서 운영 중인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다. 지역별 사용자 특성에 최적화된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선도하며, 지난해 기준 누적 앱 다운로드 수만 2억 건을 돌파했다.

CJ올리브영은 2019년 말 동남아 최대 유통 기업 데어리팜 그룹과 MOU를 맺고 대표 헬스&뷰티 스토어 가디언에 진출하며, 동남아 공략의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는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도 진출해 현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공략하며 동남아 세(勢) 확장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쇼피 내 올리브영관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하는 올리브영 자체 브랜드는 6개다. 색조 브랜드 웨이크메이크와 컬러그램, 스킨케어 브랜드 라운드어라운드와 보타닉힐 보, 브링그린, 뷰티 소품 브랜드 필리밀리다.

CJ올리브영은 쇼피가 진출한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2개국에서 올리브영관 운영을 시작하며, 3월에는 쇼피 대만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두 국가 모두 K뷰티와 모바일 쇼핑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 비중이 높은 만큼, 우수한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고 K뷰티 대표 플랫폼으로서 올리브영의 인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K뷰티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현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플랫폼 공략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올리브영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의 K뷰티 성장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한국 화장품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CU "친환경 종이컵만 팝니다"

접시 등 일회용품 8종 교체

CU가 업계 최초로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봉투의 전면 도입을 선언한데 이어 올해부터 일회용품까지 친환경 제품으로 전격 교체한다.

BGF리테일은 5일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이컵, 접시류 일회용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하고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제품들은 재고 소진 시까지만 판매 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CU 친환경 일회용품은 소주컵, 종이컵, 접시 등 총 8종이다. 종이컵류의 경우, 100% 미표백 펄프로 만들어 재활용이 용이하고 강도와 방수력이 높은 크라프트지로 제작했다. 생산 과정에서도 화학적 처리를 대폭 줄였으며 지정된 산림의 목재만 사용해 국제산림경영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접시류는 특수 발포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기존 일반 제품 보다 원료 사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 탄소 배출량을 감축했다. 또한, 모든 제품은 밀봉, 압축 포장함으로써 비닐 사용량을 최소화 한 것도 차별점이다.

특히, CU의 친환경 일회용품은 헤이루(HEYROO) PB(자체브랜드) 상품으로 기획해 환경보호를 위한 CU의 의지와 진정성을 담았다.

담당 MD는 CU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시스템)에 손편지를 남겨 "최대한 환경을 다치지 않게 생산했지만 최소한의 고객 편의를 위해 구색을 갖추고 있을 뿐, 판매를 장려하고 있지 않는다"며 "일회용품은 어떤 방식으로든 환경에 이롭지 못하기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회용품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영호 BGF리테일 상품본부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대한민국이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지난해 8월31일 액면분할 이후〉

애플 주가 0.29% 오를 때 삼성전자 55% 뛰었다

코로나發 메모리 반도체 특수…스마트폰 점유율도 탄탄
"저평가 매수 기회" 개인 1년 새 10兆 사들이며 상승 주도
증권가 "D램 업황 개선 등 추가상승 여력" 목표가 줄상향

'(코로나19 위기 이후)최고의 승부사는 집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산 투자자다.' 삼성전자에 대한 '동학개미'(개인투자자)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증시가 급락하자 반등 기대감을 안은 개인투자자가 대거 유입되며 '최애' 종목으로 떠올랐다. 최근 1년간 10조 원 넘게 쇼핑했다.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삼성전자는 굳건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가 많다. 한 때(금융위기 이후 미국 투자자) 애플이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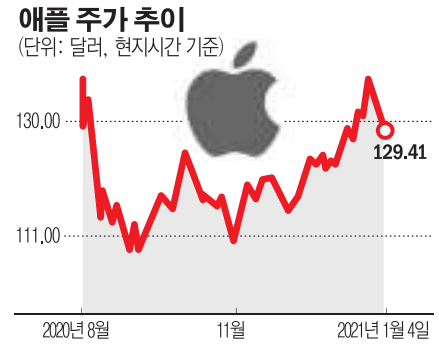
강력한 경쟁자인 '애플'은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기에 눌린 모양새다. 최근 4개월간 55%를 웃도는 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왕좌'의 자리는 삼성전자 몫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메모리 반도체·가전(TV) 1위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발판삼아 10만 전자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 현실이 된다면 주가 상승률에 이어 영업이익 증가율까지 애플을 누르고 '왕좌'에 오를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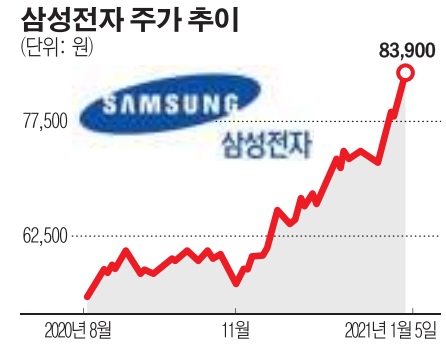
5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08%(900원) 상승한 8만3900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다.

주가 상승률만 놓고 보면 애플을 압도한다. 애플 주가는 지난해 8월 31일(129.04달러) 액면분할한 이래로 이날까지 0.29% 올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J'자 상승곡선을 그리며 55.37% 상승했다.

탄탄한 펀더멘털(기초 체력)과 이익 창출 능력보다 저평가된 삼성전자의 '몸값'이 부각되면서 동학개미들이 쇼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강한 체력은 반도체에서 나온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전체 D램 시장 매출은 지난해 656억4300만 달러(약 71조4200억 원)로 2019년 대비 5%가량 늘었다. 낸드플래시도 같은 기간 460억6200만 달러(약 50조1200억 원)에서 568억8800만 달러(약 61조8900억 원)로 23% 확대됐다. 올해는 분위기가 더 좋다. D램은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812억3900만 달러(약 88조3900억 원), 낸드플래시는 14% 증가한 649억9500만 달러(약 70조7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두 업체가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 50%에 이른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코로나19는 되레 득이 됐다. 재택근무 확산,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에 따라 노트북과 스마트폰, 서버 등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제품의 수요가 늘었다. 여기에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개발 확대 등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대만 TSMC를, 5G 통신장비 부문에서는 중국 화웨이를 제치는 것이 목표다. 이미 5G 통신장비 분야에서는 기존의 주류였던 노키아와 에릭슨을 앞서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도 탄탄하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총 2억5490만대 스마트폰을 출하하면서 19.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갤럭시S 21을 선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애플 '아이폰12'에 대응하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제품 생산이 막힌 화웨이의 빈자리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익 점유율은 애플을 바짝 뒤쫓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애플 스마트폰 시장 이익 점유율은 60.5%였다. 전 분기(79.0%)나 지난해 같은 기간(66.9%)에 비해 점유율이 크게 낮아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32.6%로 올라섰다. 2014년 2분기 37.9%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 분기(13.8%)나 작년 동기(18.8%)와 비교해서도 2~3배가량 점유율이 올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2019년보다 32% 늘어난 37조40억 원이다. 올해는 45조7230억 원으로 전망한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증가율을 19.19%로 보고 있다.

증권사도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는 이날 목표주가를 8만6000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11만1000원으로 올렸다. 전날 키움증권은 10만 원을 제시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 엑시노스 점유율 상승, D램의 업황 개선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국민연금, 대한항공 유상증자 정관변경 반대

주식 보유량 많지 않아… 아시아나 인수 자금조달엔 큰 영향 없을 듯

국민연금이 6일 예정된 대한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량이 많지 않아 인수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수탁위는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인 국민연금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으며,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1조5000억 원과 채무상환 자금 1조 원을 조달하기 위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주식 수 기준으로는 약 1억7361만 주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유증을 위해서는 우선 발행주식총수를 늘려야 한다.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 주식 총수는 3억5000만 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000만 주에서 7억 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대한항공의 지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조원태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3.35% △국민연금 8.11% △스위스크레딧 3.75% △우리사주 1.46% 보유하고 있다. 그 밖에 소액주주 비중이 53.33%에 달해 국민연금의 반대보다 소액주주의 의견에 따라 이번 주총 결과가 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유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관 변경을 위해) 찬성률을 받기 위해 쉽지 않겠지만, 증권사에서도 참여율이 높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총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外人 유입 늘었지만… 주도권 쥔 '개미'

보유 시가총액 723兆 '역대 최고'
비중은 36.5%로 1.65%P 줄어

지난해 국내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지만,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에 증시 주도권이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코스피(유가증권시장) 보유 시가총액은 723조674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564조986억 원) 대비 28.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1980조5432억 원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은 38.15%에서 36.50%로 1.65%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신규 유입이 이를 앞선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증가로 신규 계좌 개설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키움증권에서 개설된 신규 계좌는 50만 개로 하루 2만개 안팎의 새 계좌가 만들어졌다. 키움증권의 2020년 연간 신규계좌 개설 건수도 전년의 5배(333만 건)에 달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3552만 개(지난달 29일 기준)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5개의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투자자 수를 700만 명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가 개인과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의 통화(M2)는 2020년 10월 기준 3150조 원으로 1년 만에 276조 원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푼 돈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됐다.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 둔 대기 자금(주식예탁금)은 1년 새 27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증가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각국이 방출한 막대한 유동성으로 글로벌 차원의 증시 랠리가 펼쳐졌고, 랠리가 이어질수록 자금이 지속 유입돼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며 "급락 이후 반등을 경험한 학습효과와 주가 상승으로 추종 매매가 늘어났지만, 주식이 유일한 투자 대안이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고객들 손해 보더라도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

투자자 울리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일부 객관적 투자정보 제공보다
거래 규모 늘리는 데 열 올려
"관리·감독 느슨… 대책 마련을"

지난해 12월 주식투자를 마음먹은 A 씨는 정보가 힘이라는 생각에 전문가 카톡방을 찾았다. 매달 정보이용료를 내는 다른 카톡방 달리, 증권사 계좌를 열 때 증권사 지점을 통하고, 전문가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홍보했다. A 씨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된 전문가는 전 재산을 한 종목에 투자하라고 추천했다.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 후 미수를 써서라도 다시 한 종목만 사라고 강조했다. 손해가 커질수록 A씨는 전문가에게 의지했고,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 리딩방 피해에 이어 제도권 내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리딩방이 정보이용료를 받는다면, 투자권유대행인은 거래 수수료 일부를 얻어가는 방식이다. 최근 개인투자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투자권유대행인은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객관적 투자근거 제공 대신 거래 규모를 키우는 데 몰두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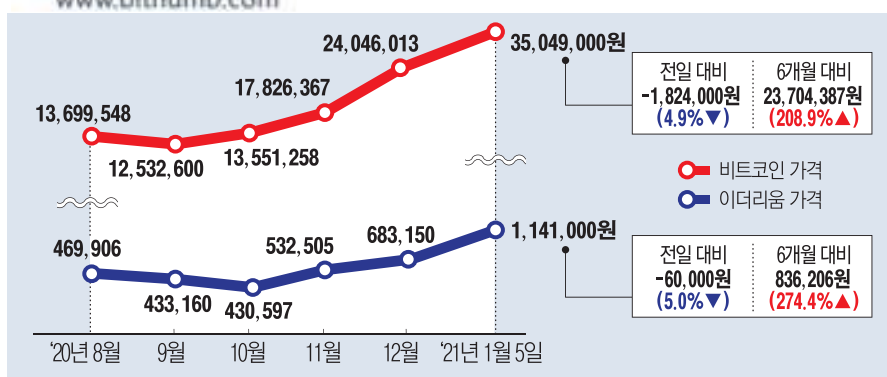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권유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펀드,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통과하면 기본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계좌를 열 때 투자권유대행인 고유 아이디를 적고, 위탁계좌로 거래하면 해당 계좌의 거래 수수료의 50~60%가량이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돌아간다.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엮인 개인투자자 수가 많고, 거래 규모가 크며, 자주 돌릴수록 돌아가는 수수료도 커지는 셈이다.

자본시장법 아래 운영되는 제도지만, 관리·감독 체계는 느슨한 실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사 내부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는데, 실제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다. 증권사로서도 고정비용 없이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창구여서 규제보다는 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 그만이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준용된다고 하지만, 이는 설명·판매 의무에 적용된다. 주식투자 피해가 발생해도 투자자 자기원칙책임이 적용돼 보상도 어렵다.

이인아 기자 ljh@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1년 1월 5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50,300	-41,700 (8.5%▼)	이오스	3,140	-184 (5.5%▼)
리플	261	-14 (5.1%▼)	비트코인골드	9,860	-290 (2.9%▼)
라이트코인	171,200	-12,700 (6.9%▼)	이더리움 클래식	7,745	-370 (4.6%▼)
대시	98,200	-6,900 (6.6%▼)	퀀텀	2,792	-78 (2.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삼성·대치·청담·잠실동〉

힘 못쓰는 '토지거래허가제'… 강남 속속 신고가

잠실엘스·대치삼성 등 집값 급상승…거래량도 증가 추세

풍선효과로 인근 아파트값 '쑥'…"규제보다 똘똘한 한 채"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정부가 지난 6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적지 않다. 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한동안 줄던 아파트 거래량도 최근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까지 보인다.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지난 달 24일 23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같은 달 22일 22억6000만 원에 팔린 지 이틀만에 최고가에 거래된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24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잠실동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작년 6월 23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가 금지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 거래 허가제'나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규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단지들에선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 151㎡형은 지난 달 16일 33억 원에 팔렸는데, 이는 직전 최고 거래가(31억5000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오른 것이다.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전용 97㎡형도 지난달 10일 25억5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고, 삼성동 아이파크 145㎡형은 같은달 28일 무려 50억 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격인 39억 원보다 11억 원이나 올랐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줄었던 아파트 매매거래량도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대치·삼성·청담·잠실동 등 4곳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제도 시행 직후인 7월 66건으로 크게 줄어든 뒤 8월 40건, 9월 40건, 10월 34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11월 105건으로 급증한 뒤 12월에도 93건을 기록했다. 12월의 경우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에선 집값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동으론 잠실동이지만 법정동으론 신천동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매매거래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 3위(261건)에 올랐다. 정부 규제가 강남 고가주택에 집중되면서 거래량 상위 아파트가 대부분 강북 외곽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파크리오는 유일하게 강남권 아파트 중 10위 안에 이름 올렸다.

아파트값도 뛰고 있다. 인근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기 전만 하더라도 파크리오 아파트 전용 84㎡형은 17억~18억 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말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1억4000만 원에 팔렸다.

대치동 맞은편 도곡동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곡렉슬 아파트 전용 114㎡형은 지난달 12일 직전 거래가(29억 원)보다 3억 원 이상 오른 32억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정부가 규제 일색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전국이 규제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며 "강남권으로 매수세가 몰리자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가격 현황 (단위 : 원)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단지	직전 거래액	최근 신고가
잠실동 잠실엘스(전용 84.8㎡)	22억6000만 (2020년 12월 22일)	23억5000만 (2020년 12월 24일)
대치동 대치삼성(전용 97㎡)	24억6000만 (2020년 11월 10일)	25억5000만 (2020년 12월 10일)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전용 151㎡)	31억5000만 (2020년 12월 4일)	33억 (2020년 12월 16일)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45㎡)	39억 (2020년 8월 10일)	50억 (2020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량 (단위 : 건)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삼성동	122	16	18	9	7	40	11
청담동	45	7	4	7	7	10	9
대치동	135	19	7	9	6	19	17
잠실동	259	24	11	15	14	36	56
총	561	66	40	40	34	105	93

에어컨 실외기 내부 설치땐 바닥면적 산정 1㎡까지 제외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8일 시행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100가구,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 설치 시 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가구(실)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공동주택은 100가구(현재 300가구),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강북 교통 요충지 '제기 6구역' 재개발 탄력

정비구역 지정 1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내년 하반기 착공·분양

서울 강북 교통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는 청량리역 일대 제기6구역이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6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말 동대문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2009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지 11년 만이다.

제기6구역은 노후 주택과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당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8년 가까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규모가 크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017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뒤 지난해 SK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차근차근 사업 절차를 밟아왔다.

제기6구역 재개발 조합은 내년 하반기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관리처분인가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제기동 일대 재개발 구역 중 청량리역과 가장 가까운 제기4구역은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다.

제기동 D공인 측은 "제기6구역 내 단독주택은 현재 3.3㎡당 매매가격이 약 35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돼 초기 투자금으로 약 7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제기6구역 주변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다 청량리 일대 교통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 매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제기동 인근 청량리 일대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개발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청량리역은 KTX·경의중앙선·분당선·지하철 1호선 등 6개 노선이 만나고 있는 데다 앞으로 면목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 등의 개발을 앞두고 있다. 청량리 일대는 이미 서울 동북권 교통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제기6구역의 경우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까지 끼고 있다.

청량리 일대가 서울 교통 요충지로 떠오르면서 주변 주택시장도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19년 청약시장에 나온 용두동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청량리3구역 재개발 주상복합아파트)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17가구 모집에서 총 3636명이 몰려 평균 31.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해 분양됐던 청량리4구역 '롯데캐슬 SKY-L65'는 1만7299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14.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량리8구역에는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이 들어선다. 지난해 청약시장에 나온 '래미안 엘리니티'(용두6구역 재개발 단지)는 2만257명이 청약에 나서면서 5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동대문구 '제기 6구역' 위치도

• 규모 2만4320㎡ • 가구수 423가구 • 시공사: SK건설 • 개발 현황: 사업시행인가

정부, 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전담부서 설치

'정인이' 계기로 공적 책임 강화
전담공무원 전국에 664명 배치
경찰 총괄부서 신설 등 적극 대응

정부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또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44명 배치, 경찰청 내 아동 학대 총괄부서 신설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며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가 현행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된다.

또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했다.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도 강화한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한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 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 필요성,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인아 미안해"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선물을 놓고 있다.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뉴시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더 못버틴다"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손실 보상 헌법소원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실내체육업자도 "형평성 어긋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PC방 업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실내체육 사업자들도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내체육 사업을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한 달 가까이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에는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휴업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 지침에 순응했다"며 "반면 집합금지에 불응하고 시위에 나선 업종 일부는 이번 집합 금지업종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는 유독 실내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재벌 프로포폴 투약' 병원장 1심 징역 3년

재판부 "시술과 무관"

재벌과 연예인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I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1억 731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투약이 필요했는지 그 필요성에 맞게 최소한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투약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병원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종용 기자 deep@

시냅스 사멸과 생성… '뇌의 기억' 새 학설 제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 정원석 카이스트 교수팀

기존의 미세아교세포 아닌 별아교세포 역할…네이처에 게재
자폐증·조현병·치매 등 뇌 신경질환 치료 새로운 전기 기대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한 국내 연구진이 '성인의 뇌가 기억을 유지하는 방식'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 뇌·인지과학 연구 분야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삼성전자는 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정원석 교수 연구팀이 한국뇌연구원 박형주 박사팀과 공동으로 뇌에서 시냅스가 제거되는 새로운 방식을 성인의 뇌에서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12월 23일(영국 현지시간) 최상위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공개됐다.

신경세포인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는 뇌 안에서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냅스는 사라지고 새로운 시냅스가 생성된다. 그러나 어떻게 기존의 시냅스가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이 뇌의 기억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경교세포는 뇌에서 뉴런을 도와 뇌 항상성 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세포로 '별아교세포', '미세아교세포', '희소돌기아교세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는 이 세포들 중 '미세아교세포'가 시냅스를 제거하는 주된 세포로 알려져 있었다.

정원석 교수 연구팀은 뉴런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교세포 중 가장 숫자가 많은 '별아교세포'가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에 시냅스를 제거한다는 자신들의 기존 연구 결과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미세아교세포'가 시냅스를 제거하는 주된 세포일 것이라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고, '별아교세포'가 더 활발하게 시냅스를 제거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연구팀은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방식을 검증했다. 시냅스가 제거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 별아교세포가 미치는 영향이 뇌가 기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인 것을 생체에서도 확인했다.

'성인의 뇌가 기억을 유지하는 방식'을 규명한 정원석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 사진제공 삼성전자

정원석 교수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별아교세포'가 시냅스를 제거하는 현상을 조절하게 할 수 있다면 자폐증, 조현병, 치매 등 뇌 신경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석 교수 연구팀은 2017년 6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과제로 선정돼 연구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박형주 박사팀은 한국연구재단 뇌원천기술개발사업, 한국뇌연구원 기관고유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연구 분야 육성·지원을 목표로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1조5000억 원을 출연해 시행하고 있는 연구 지원 공익사업이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634개 과제에 8125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환경소녀' 툰베리, 성인 됐다
18세 생일 SNS에 "나는 자유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사진〉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소셜미디어에 성인이 됐음을 인증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18세 생일을 맞은 툰베리는 트위터를 통해 "열여덟 번째 생일을 축하해줘서 고맙다"며 "드디어 난 자유로워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툰베리는 "오늘 밤 여러분은 내가 동네 술집에서 기후변화와 학교 파업 등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들에 대해 폭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집에 불이 나면 화염이 번지는 것이 멈출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참 요구도 빼놓지 않았다.

툰베리는 15세이던 2018년 9월부터 금요일이면 등교를 거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기후변화에 미온적인 어른들을 비판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이후 2019년에는 유엔본부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비판했고, 지난해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SNS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세력의 후원 속에 편향적인 비판만 한다는 이유로 꼭두각시라는 별명을 얻는 등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최태원의 '안전망' 구축, '한끼 나눔' 프로젝트로
SK, 영세식당에 도시락 주문해 취약계층에 배달

SK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끼니 해결조차 쉽지 않은 취약계층과 매출 급감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 음식점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안전망(Safety Net)'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팬데믹 상황 속 무료 급식소 중단으로 가장 절박한 결식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한끼 나눔' 프로젝트는 영세 식당들에 도시락을 주문해 매출을 늘려주고, 이 도시락을 복지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상생 모델로 무료 급식소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향후 3개월간을 긴급지원 기간으로 정해, 독거노인 등에게 40여만 회분 끼니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열지 않은 올해 그룹 신년회 비용도 이 프로젝트 예산에 활용한다.

SK는 이달부터 서울 중구 명동·회현동 중소 음식점들에 도시락을 주문하고, 이 도시락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명동밥집'에 공급하는 '소상공인 온기(溫氣) 배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SK는 도시락비 일체를 지원하며, 명동밥집을 통해 하루 500여 명의 노숙인, 결식 노인 등에게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SK의 '소상공인 온기 배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남촌상인회 윤남순 회장이 명동밥집에 보낼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다.

김택진·황성우·정철동 … 공학한림원 정회원 50명 선정

한국공학한림원은 2021년도 신입 정회원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등 50명을, 신입 일반회원으로 구현모 KT 사장 등 89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학한림원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와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원로회원, 외국회원으로 구분된다.

일반회원 중 선발하는 신입 정회원에는 학계에서 문수복 KAIST 교수, 김동환 고려대 교수, 윤채옥 한양대 교수, 정상섬 연세대 교수 등 26명, 산업계에서 김택진〈왼쪽 사진부터〉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황성우 삼성SDS 사장, 정철동 LG이노텍 대표,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 김희철 한화솔루션 사장, 이규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조황희 STEPI 원장 등 24명이 선임됐다.

신입 일반회원에는 학계에서 한승용 서울대 교수, 양경철 포스텍 교수, 채찬병 연세대 교수 등 43명, 산업계에서 구현모 KT 사장, 경계현 삼성전기 사장, 진교원 SK하이닉스 사장, 류승호 이수화학 대표, 손지웅 LG화학 사장,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 이상웅 세방그룹 회장 등 46명 등 총 89명이 선임됐다.

공학한림원 회원 선정은 매년 상반기에 후보자 발굴·추천작업으로 시작해 하반기에 연말까지 업적심사를 수행한 뒤 전체 정회원 서면 투표를 하는 등 다단계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연합뉴스

수출입銀 혁신금융본부장 안종혁 준법감시인에 유연갑 실장 선임

수출입은행은 혁신성장금융본부장에 안종혁〈왼쪽 사진〉 기업구조조정단장을, 준법감시인에 유연갑〈오른쪽〉 윤리준법실장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안종혁 신임 부행장은 기업구조조정, 기업금융, 국제투자 업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총괄할 예정이다. 유연갑 신임 준법감시인은 준법법무실장, 기업개선부장 등을 역임한 내부통제 및 법무 업무 전문가로서, 향후 수은의 내부통제 업무를 통할할 예정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GC녹십자헬스케어, 안효조 대표

GC녹십자헬스케어가 신임 대표이사에 안효조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안효조 신임 대표는 지난해 GC녹십자헬스케어에 합류해 디지털 헬스케어 및 B2C 신규 사업 강화 등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어왔다.

안 대표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헤럴드경제 기자를 거쳐 KT에 입사해 신사업 개발 등을 주도했고, 케이뱅크 준비법인을 설립한 뒤 대표와 사업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유진ITS, 오승훈 대표이사 선임

유진그룹 IT계열사 유진아이티서비스(유진ITS)가 신임 대표이사로 오승훈 상무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오 대표이사는 1970년생으로 고려대에서 통계학, KAIST대학원에서 산업경영학을 전공했다. PwC컨설팅, 딜로이트 컨설팅을 거쳐 한국IBM에서 컨설팅부문 본부장과 전략사업부문 제조장치산업 담당 상무 등을 역임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PKF서현, 에너지본부장 이성오

PKF서현회계법인은 1일부터 에너지컨설팅 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으로 이성오 전 SK E&S본부장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성오 신임 본부장은 SK E&S LNG사업 본부장, 강원도시가스 대표이사를 거쳐 ㈜보성 에너지사업 총괄 부사장, ㈜한양 가스사업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총 35년 이상을 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활약한 바 있다. 손엄지 기자 eoml@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제제도개선과장 홍영철 △위원장 비서관 이덕희

◆**한국도로공사** ◇선임 △상임감사위원 김택수

◆**한국석유공사** ◇본부장(상임이사) △경영지원본부장 최문규 ◇처장 및 지사장 전보 △홍보문화실장 현송현 △안전보안처장 정찬식 △해외사업1처장 이재석 △해외사업2처장 임건묵 △석유비축처장 김광신 △유통사업처장 직무대행 전병혁 △에너지인프라사업처장 서경식 △서산지사장 김영철 △울산지사장 박종근 △평택지사장 이주현 △구리지사장 윤진용 △용인지사장 윤관용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임원 △경영기획부문 김익수 △리스크관리본부 김도식 ◇부장 △미래혁신TFT 하성국 △시너지추진부 최홍석 △경영관리부 이광호 〈전보〉 ◇임원 △준법감시본부 박상호 ◇부장 △리스크관리부 남창주

◆**코웨이** 〈승진〉 ◇전무 △박재영 Global법인사업부문장 △박찬정 환경기술연구소장 ◇상무 △김순태 경영관리실장 △심병희 마케팅실장 △최기룡 말레이시아 법인장 ◇상무보 △김영진 IT서비스기획실장 △나지혜 홈케어사업부문장 △노흥식 4사업부문장 △백주현 개발2실장 △오주철 생산기술연구실장 △정영호 재경실장 △최인두 전문연구위원

◆**안국약품** 〈승진〉 ◇상무 △경영전략본부장 김선엽 △AG CnTech본부장 강영수

◆**필룩스** △그룹 경영 총괄 부회장 우태규 △그룹 홍보총괄 이사 최원 △㈜필룩스 재무 부문 총괄 부사장 오상혁 △그룹 유도단 남자팀 감독 송대남

◆**씨젠** △영업·마케팅 총괄 사장 이호

◆**고려신용정보** ◇본부장 발령 △고객자산2본부장 이충렬 △고객자산3본부장 오상범

◆**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 ◇승진 △아이뉴스24 금융부장 김다운 △증권부장 이연춘 △정보미디어부장 김문기 △영상부장 정소희 △미디어기획부장 조은수 △조이뉴스24 엔터경제부장 이미영 ◇전보 △아이뉴스24·조이뉴스24 통합디지털미디어센터장 정명화

◆**한국정경신문** △편집국 부국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강헌주

◆**한스경제** △정치·사회부 겸 ESG 에디터(부국장) 정민구

◆**뉴데일리** △기획취재부장 겸 제약의료부장 류철호 △유통팀장 강필성

부음

▲**김재은** 씨 별세, **김문석**(SBI저축은행 부사장)·**현주**(개인사업)·**인영**(고용노동부)·**홍석**(북피앤스 대표) 씨 부친상 = 5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031-961-9400

▲**신재정** 씨 별세, **신형철**(오늘경제 여행국장) 씨 부친상 = 5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9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02-3410-6918

일본은 지금

코로나19에 위협받는 스가 정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정치학

스가 총리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3중고 상황이라는 게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주된 인식이다. 첫 번째는 코로나 대책 실패이고 두 번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스캔들에 따른 여론 악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가 정권의 기반인 니카이파 중진 요시카와 다카모리 의원의 뇌물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12일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 같은 달 31일에는 처음으로 4000명은 물론 4500명도 돌파했다. 새해에도 계속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이상이어서 일본은 지금 비상사태에 빠졌다.

결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긴급사태 선언을 꺼렸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이번 주 선언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한국의 방역 3단계 격상과 비슷한 조치가 된다. 그러나 일본에서 긴급사태 선언은 법적 근거가 약하고 어겨도 벌칙이 없다. 어디까지나 국민의 협조라는 형식이니 한계가 있다. 한국은 행정명령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긴급사태를 선언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책에 한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행정명령으로 거리 두기를 잘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거리 두기 요청이 약하다. 일본에서도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현재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로 한정하고 있지만, 음식점 안은 대단한 밀집 상태다. 음식점들이 영업시간 내에 많은 손님을 확보하려고 가게 안 거리 두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한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매일 TV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코로나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코로나대책본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대신 각종 뉴스에서 기자나 평론가들의 해설, 가끔 나오는 전문가들의 코멘트 등이 보도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국민에게 코로나19 상황을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호소력이 약하다.

백신 확보 상황을 보면 일본은 현재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했고 합계 1억45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일본은 인구가 1억3000만 명 정도이므로 충분한 확보량이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1월 4일 기준 8명이다. 그들 중 7명은 영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이고 1명은 귀국자의 가족이다. 1명은 영국을 다녀온 항공기 조종사로부터 감염되었는데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면제하고 있어 이 조종사로 인해 변이 바이러스가 주변에 퍼졌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영국형이 9명, 남아프리카공화국형은 1명 각각 확인됐다. 이것은 일본보다 많은데 한국은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바이러스 검사 능력은 하루 11만 건 정도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검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 2일 일본은 2만6000건 정도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한국은 같은 날 약 5만3500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의 절대 수로도 한국은 일본의 두 배 정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로 따지면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20명 정도 검사를,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103명 정도 검사를 실시한다. 즉 한국은 일본의 5배 정도 검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일본의 확진자 수는 실제로는 현재의 5배일 가능성이 있다. 즉, 하루 1만5000~2만2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루 수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유럽 각국과 일본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스가 총리는 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3중고 상황이라는 게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주된 인식이다. 첫 번째는 스가 정권의 코로나 대책 실패이고 두 번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스캔들에 따른 여론 악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가 정권의 기반인 자민당 파벌 니카이파의 중진 요시카와 다카모리 의원이 어느 식품회사로부터 약 1500만 엔(약 1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스가는 암울한 새해를 맞이했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스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던 지난해 9월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는 투표하지 않고 스가를 그대로 총재로 인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스가 정권이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가짜뉴스도 유행병 같다 카더라

정대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사람들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려 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미국인 1640명 중 28%가 믿고 있으며, 공화당원으로 그 범위를 좁히면 44%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현재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며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도 일종의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소비해왔다.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예방이 된다'는 말을 믿고 실천하다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교회도 있었다. '10초 숨을 참아보면 자가진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혼자 숨을 참아본 이들도 많을 것이다. 음모론이나 가십거리 정도로 치부될 만한 가짜뉴스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고 있을까?

가짜뉴스는 '진짜뉴스인 것처럼 조작된 뉴스'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가 최근 들어 가짜뉴스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그것이 새로운 개념이라서가 아니라 그 양이나 파급력이 과거에 비하여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가짜뉴스 문제를 파헤치기 위하여 가짜뉴스 시장을 살펴보자.

가짜뉴스 시장의 수요자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고, 공급자는 각종 뉴스미디어이다. 미디어에는 신문사나 방송사와 같은 전통적인 뉴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뉴미디어도 포함되어 있다. 19세기 후반 언론의 산업화와 기술의 발전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소수의 대중매체에 그 역할을 집중시켰다. 20세기 후반 인터넷이 발전하며 뉴스시장에 변화가 생겨났다. 웹페이지 하나로 미디어 운영이 가능한 저비용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페이스북 무료계정 하나로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뉴스의 생산이 쉬워진 만큼 경쟁은 훨씬 치열해졌다. 생산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뉴스 생산의 속도가 경쟁의 핵심요소가 되면서, '클릭(click)수'와 '공유(share)'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빠르게 노출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미디어가 많아졌다. 이 빈틈을 가짜뉴스가 파고들었다. 취재과정의 부실에서 나온 오보의 틈바구니에서, 의도적으로 생산된 가짜뉴스는 좀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클릭 수와 공유 싸움에서 심심찮게 우위를 점하곤 한다.

이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형태의 뉴미디어이다. 대중은 SNS상에서 뉴스의 소비자인 동시에 2차 생산자로 역할한다.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발견한 사람들이 공유 기능으로 그것을 재생산하고, 그 공유된 글이 또다시 공유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짜뉴스는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소비된다. 대중은 저널리즘이나 사실보도의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유 기능을 올라탄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는 발 없는 말보다 빠르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러한 가짜뉴스가 소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찾아 헤맬 것이다. 과거에는 그것이 그리 쉽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신문이나 TV에서 전달해주는 뉴스만을 소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고, 그중에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뉴스를 무분별하게 생산하는 가짜뉴스 미디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특정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가짜뉴스를 던져주면, 그 뉴스는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마치 유행병(pandemic)처럼.

바야흐로 인포데믹(infodemic)의 시대이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유행병처럼 번져나가는 시대이다. 정치적인 선전을 넘어 의료지식과 관련된 가짜뉴스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무서움에 가짜뉴스의 사악함이 더해져 엄청난 전염성과 파급력을 가진 허위정보가 무차별하게 공격한다. 이제 저널리즘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개인은 동기화된 추론이 아닌 비판적 추론을 해야 한다. 스스로 팩트체커가 되어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을 비판적으로 소화하고 가짜 정보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기자수첩

'집값 백신'은 언제 나오나

정용욱 부동산부/dragon@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어둡다. 지난해부터 짊어진 어깨 위 짐은 올해도 여전하다. 한쪽 어깨 위에는 코로나19, 또 다른 어깨 위에는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라는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집값 급등이라는 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내내 짊어지고 가야 할지 모른다. 당장 올해 집값 급등을 막을 치료제도, 앞으로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킬 백신도 없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확산과 집값 급등은 지난해 초 동시에 시작됐다. 하지만 일 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국내 집값 급등을 잡아야 할 정부와 여당은 집값 급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집권 당시 수립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시장 과열을 부채질했다. 새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선한 의도는 좋다. 하지만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으로 이상과열 현상을 보인 부동산시장을 눈앞에 두고 펼칠 정책은 아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의료진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온갖 연구와 실험, 대응,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책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폭등이라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원칙과 진영 논리를 넘어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지 되묻고 싶다.

올해 정부의 태도는 남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도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릴 일이 산적해 있다"며 해결을 다짐했다.

평균적으로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1년 만에 개발됐다. 기술의 발전도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가 전력을 쏟았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정부와 여당이 전력을 기울여 집값 잡을 백신을 개발하길 희망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시어도어 루스벨트 명언

"투표는 권총과 같다.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유용성이 갈린다."

국제문제에 개입하여 러일전쟁 중재, 모로코 분쟁 해결 공로 등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기로 합의하는 등 힘의 논리에도 충실했던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858~1919.

☆ 고사성어 / 절용애인(節用愛人)

나라의 재물을 아껴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는 뜻.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다섯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원전은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공자의 말.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일을 신중하게 해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씀씀이를 줄이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동원할 경우 때를 맞추어야 한다[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 시사상식 / 더닝 크루거 효과(Dunning-Kruger Effect)

능력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도 능력이 없어 오류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심리학의 인지편향(認知偏向) 중 하나다. 실험 결과 능력 없는 사람은 자기 실력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한다. 능력 없는 사람은 타인의 능력을 알아보지도 못한다.

☆ 고운 우리말 / 치사랑

손아랫사람의 손윗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 유머 / 학교 빨리 가고 싶은 이유

코로나19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받는 초등학생이 엄마와 길을 가다 방송사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학생이 학교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하자 기자가 이유를 물었다. 학생의 대답.

"학교 가서 빨리 점심 먹고 싶어요. 집밥은 맛이 없거든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종훈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랩부	(02)799-2664	사진팀	(02)799-674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구조조정은 과감하게

데스크칼럼

김문호
자본시장부장

정부가 12년 만에 산업 관련법 중 최상위법인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위기로 한계기업들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산업구조조정 재편 밑그림과 근거를 미리 그려놓겠다는 것이다.

산업발전법은 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법이다.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으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개정되고 만들어지면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방향의 윤곽이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다.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여러 주력산업에서 흔들리는 기업이 속출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꽤 됐다. 저금리 환경으로 인한 낮은 자금조달 비용과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공급 덕분이다.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 신용등급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0년 기준 국내 한계기업이 처음으로 전체기업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보다 6.6%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추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향후 코로나19가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원도 종료될 때, 기업의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현재화하는 절벽효과를 대비해야 한다"며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입한 금융지원이 '잠재 부실'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할 한계기업들이 많아지고 버젓이 연명하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4~6월) 한국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세의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신용갭이 13.8%로 1분기(9.4%)보다 4.4%포인트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간 2009년 말 이후 10년 6개월 만에 10%를 넘어섰고, 1983년 2분기(14.0%) 이후 최고 수준이다. 조사 대상 44개국 중 8번째다.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대비 생산성이 낮다. 이 때문에 투입된 자본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한계기업의 더 큰 문제점은 동종산업 내 생산적인 기업들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한계기업이 증가할수록 건전한 기업들은 투자 유치 기회를 잃게 된다. 산업 내에서의 한계기업 비중 1%포인트 상승은 기회비용으로 건전한 기업 자본 투자를 1%포인트 정도 감소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했다. 경기 살리기라는 급한 불 끄기에 더 힘을 쏟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은행들도 여신이 부실로 확정될 경우 당장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까닭에 한계기업을 연명시키고 처리를 뒤로 미룬 측면이 있다.

대기업 그룹이 부실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지원으로 연명시키며 위험을 키우고, 채권은행들이 자사 이익을 앞세우느라 처리를 뒤로 미뤄오는 동안 부실·한계기업은 해당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계가 뚜렷한 우리 경제구조에선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큰 이권이 걸린 사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실에 바탕을 두고 특정 대기업 그룹이나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거나 압력을 넣어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떠넘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최근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을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취득하는 건 조원태 회장 측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참여연대는 "국민 혈세 8000억 원으로 근거 없는 졸속 합병"이라면서 "배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피인수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의 모(母)그룹인 금호그룹의 부실 경영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는 코로나 위기 전부터 경영난에 시달려 왔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산은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의 주장대로라면 뒤탈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하려면 그 근거를 분명하게 대고, 결정을 끌어낸 데 대한 정치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명분으로 가뜩이나 후진적인 재벌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더 후퇴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해당 기업 노동자의 고용과 협력업체의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후속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그렇다고 한계기업을 무조건 퇴출시키란 말은 아니다. 코로나19라는 수익악화가 꼭 기업 잘못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나기만 피하면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합리적인 정책과 판단으로 '게도 구럭도 다 잃는(蟹網俱失)' 우를 범하지 않길 기대한다.

kmh@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가세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4·15 총선 직전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돼 5월 14조2000억 원이 나갔다. 모든 가구가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씩 받았다. 9월에는 고용취약계층과 기초수급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7조8000억 원이 2차로 지원됐고, 이들에 대한 3차의 9조3000억 원 지출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소비가 계속 뒷걸음하면서 경기는 계속 가라앉고 있다. 민생의 고통도 깊어진다. 정부가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경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한다. 이미 재정은 바닥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558조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에 국가채무가 작년 846조9000억 원에서 금년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 43.9%에서 올해 47.3%로 치솟고, 재정지출을 더 늘리면 50%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내놓은 연구결과만 봐도 그렇다. KDI는 작년 5월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에 지급한 돈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준 지원금 중 신용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모가 11조1000억~15조3000억 원이었던 반면, 늘어난 카드 매출은 4조 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소비효과가 투입 자금의 26.2~36.1%에 불과한 것이다. 나머지 70% 정도는 가계 빚을 갚거나 저축에 사용됐다. 또 지원금이 가장 충격이 큰 음식점·이미용·여행·레저·사우나 등 대면(對面)업종으로는 별로 흘러들지 않아 매출 효과가 미미했다.

국민 모두에 재난지원금을 또 준다는 것이 선거용 포퓰리즘인 이유다. 소비 진작이나 피해 산업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이 불안한 취약계층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사회 양극화와 빈곤 또한 심화하고 있다. 재정위기에서 막대한 빚을 더 내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피해가 큰 업종과 종사자,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실직자 등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빠듯한 재원을 긁어모아도 이들을 집중 지원하기에 부족하다.

노트북을 열며

송영록
산업부 차장

영원한 스테디셀러 'TV의 반격'

2014년 1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4'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벤더블(bendable)' TV를 혁신 제품으로 공개했다. TV 역사상 처음 등장했는데, 화면을 휘게 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두 업체는 여러 사람이 시청할 경우 화면을 평평하게 하고, 혼자 몰입도 있게 시청하려면 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요즘 인기 있는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를 생각하면 된다.

깜짝 등장한 벤더블 TV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대부분 가족이 시청하는데 화면을 휘게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소비자들은 판단했다. 바로 이듬해부터 삼성과 LG 모두 생산을 멈췄다.

온 가족이 시청하는 TV를 휘게 만들 정도로 당시 TV 시장은 어려웠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영상 시청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TV 시장은 점점 쇠퇴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왔다.

당시 LG경제연구원은 '태블릿PC 확산,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보고서에서 "태블릿PC 확산에 앞으로 TV와 PC는 일부 기능이나 크기에 특화한 형태로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벤더블 TV는 혁신 기술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TV 업체의 고육책이었다.

벤더블 TV를 발표하기 바로 전 해인 2013년. 일본 파나소닉은 PDP(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 공장을 폐쇄하고 이를 매각하기로 했다. 같은 해 소니도 TV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인력과 비핵심 자산을 줄였다.

삼성과 LG전자 역시 부진한 TV 매출을 기록하며, 인력재배치와 조직 개편 등에 나섰다.

그로부터 7~8년이 지난 지금 벤더블 TV는 사라졌지만, TV는 여전히 스테디셀러다. 부침은 있었지만, TV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태블릿PC,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와 융합되면서 대화면의 효용성이 더 두드러졌다.

TV 화면을 돌려 스마트폰의 세로 화면을 최적화한 대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한 삼성전자 '더 세로' 등 아이디어 제품도 인기를 얻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TV 판매량은 2억2383만 대로 전년(2억2291만 대)을 웃돌 전망이다. 2015년(2억2621만 대)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콕' 수요는 TV 판매를 촉진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TV를 사려는 소비자가 늘었다. 특히 대형·고화질 TV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QLED(퀀텀닷 디스플레이) TV와 LG전자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의 지난해 판매 대수는 각각 전년 대비 50%, 20%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형 TV일수록 성장 폭은 컸다.

올해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열리는 CES 2021의 주인공 역시 TV다. 올해는 미니LED TV를 중심으로 마이크로LED, 롤러블 TV 등 다양한 제품이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다. 소니를 넘어선 후 삼성전자는 15년 연속 세계 TV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LG전자 역시 올레드 TV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집과 일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곧 쇠퇴한다던 TV의 반격이 시작됐다.

syr@

진료실 풍경

내 마음의 닫힘 버튼

환자들은 처방 약을 먹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약 때문이 아니냐고 묻곤 한다. 이럴 때 내 대답은 보통 '아닙니다'이다.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고 미적거리거나 애매한 대답을 하면 약 때문이라 단정하게 되고, 이러면 원하는 약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질병 치료도 힘들어진다. 물론 약이 원인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래 있던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봐야 한다.

하루는 편도선염 환자를 진찰 후 약 처방을 하고 있는데 팔을 좀 봐 달란다. 두드러기였다. 심하지 않으니 피부연고만 발라 보자고 했다. 몇 시간 후 약을 먹고 두드러기가 심해졌다며 환자가 다시 왔다. 늘 하던 대로 약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두드러기가 심해진 것이고 먹는 약을 추가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환자는 약 때문이라며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맞다' '아니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환자는 화를 내며 가버렸다. 그렇게 환자가 간 다음 내내 맘이 편치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에 항균필름을 붙이는 게 유행인데, 유독 닫힘 버튼 쪽 필름의 마모가 심하다. 열림 버튼 쪽 필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닫힘 버튼의 필름은 구멍이 나거나 너덜너덜해져 교체를 해야 할 정도다. 이렇듯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닫힘 버튼을 누른다. 진료실에서 약을 의심하는 환자에게 '아닙니다'를 연발하는 것도 일종의 닫힘 버튼을 누르는 일이며,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날 닫힘 버튼이 아니라 마음의 열림 버튼을 눌러 의학적인 견해는 내려놓고 환자 입장을 고려했다면 어땠을까?

코로나19로 3밀(밀폐·밀집·밀접)을 자제하자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다. 마스크가 일상화되고, 손도 서로 못 잡고, 가족 모임조차 꺼려진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잖아도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는데 코로나19가 우리 마음의 닫힘 버튼을 자꾸 누르는 것 같아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을
누구든 보고, 어디서든 느낄 수 있도록
복잡한 궁 안을 헤매지 않게
AR 가이드가 경사로를 먼저 찾아주고,
출입이 금지된 곳도 막힘 없이 볼 수 있게
AR 공간을 눈앞에 펼쳐줍니다
그렇게 우리 앞의 작은 벽 하나씩을 넘어
이제 거리라는 큰 벽까지 함께 넘으려 합니다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AR투어앱
[창덕ARirang at Home]
한 명 한 명을 위한
모두의 AR 창덕궁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당신의 소 시대를 만듭니다
仁政殿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다운로드하기 ONE store
지금 어디서나 창덕궁을 체험할 수 있는 '창덕ARirang at Home'을 다운로드 하세요
SK telecom